

『맨더빌 여행기』와 동·서양의 재발견 - 오리엔트의 거울에 비친 서구 자화상의 성찰과 ‘위반’의 수행 -

홍금수*

The Travels of Sir John Mandeville and the Rediscovery of the Orient and the Occident

Keumsoo Hong*

요약 : 『맨더빌 여행기』는 중세 서구사회의 동양에 대한 심상을 형성한 대표적인 여행기이다. 저자의 신원과 원본의 집필 장소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번역본을 포함해 300여 필사본이 남아 있을 정도로 당대는 물론 르네상스의 독자를 매료시킨 고전으로서, 다양한 참고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을 독창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허구 가득한 본 여행기가 주목을 받는 것은 오리엔탈리즘의 반향에 따라 편파적인 상상의 지리를 날조하는 대신, 동양이라는 성찰의 거울을 통해 유럽사회의 신앙·윤리적 타락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며 위반이라는 수행을 통해 동양을 문화적 교섭의 대상으로 재발견한 점 때문이다. 책에 묘사된 동방의 물질 풍요와 엄격한 도덕윤리의 유토피아는 성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군사적 연합의 현실적 갈망과 함께 대항해시대의 개막을 유도한다. 실재와 환상을 넘나드는 맨더빌의 글쓰기 전략은 십자군 심상에 추동된 사제 요한의 가공과 그를 향한 탐험을 촉발해 콜럼버스의 신대륙 확인과 희망봉을 경유하는 인도항로의 개척이라는 지리적 유산을 남겼다.

주요어 : 맨더빌 여행기, 사제 요한, 십자군 심상, 위반

Abstract : *The Travels of Sir Mandeville* has been a representative travel writing which shaped Westerners' mental images of the Orient during the Middle Ages. Being a literature of an anonymous writer called Mandeville, the book with about 300 manuscripts in dozens of languages had caught the attention of both contemporary and renaissance audiences. Critical reviewers argue that the book was relied to a great extent on miscellaneous references rather than being based on personal experiences. This fictitious volume, however, proves special in that it urged Westerners to think over European society's moral sins reflected on the mirror society of the Orient and helped to rediscover the East through the enlightening performance of *transgression*. The masterpiece in addition heralded the Age of Discovery with the imagined description of material bounty of Cathay and Indias and with the invention of the mysterious figure of a Christian Priest-king of John who was expected to assist the West for dispelling the Muslims from the Holy Land. *The Travels* driven by the geographical curiosity toward *terra incognita* and what I would call the Crusade mentality played a crucial role in opening the geographical horizon wide in the history of geography.

Key Words : Crusade mentality, Prester John, *The Travels of Sir Mandeville*, *transgression*

*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kshong85@korea.ac.kr

1. 서론

문학의 소양은 창의적 상상을 자극하고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필력의 중요한 원천이다. 일례로 소설가와 시인의 장소 묘사는 독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해석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딥고선 땅의 본질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 하며, 그런 측면에서 시각에 도드라진 현상을 총체적으로 집약하는 데 몰두했던 지리학자가 문학자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장소의 심층적 의미를 파헤치는 예술적 기교를 전수받고자 자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Mallory & Simpson-Housley, 1987, xi-xii). 문학자의 감성 충만한 창작활동과 사실 중심의 지리학 연구의 만남으로 성립되는 문학지리학은 가치와 태도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인간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생동감을 불어넣는 대안일 수 있다.

미적 가치를 언어로 구현하는 예술로서 문학은 과거와 현재의 삶을 관통하는 보편성을 해명하는 데 일조하며 허구를 포용하기 때문에 경험과 과학만으로 밝힐 수 없는 인간정신에 통찰을 부여한다. 특별히 문학작품을 지리적 관점에서 읽어 내리는 것은 작가가 체험한 장소의 의미를 공유하고 그가 가정한 세계 이미지를 상기하는 기회가 된다. 작품 속 지역과 장소에서 펼쳐지는 인간 경험의 다양한 특성을 재현하는 문학지리학의 연구대상으로서 문학작품은 특정 지역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과거의 지역을 복원하거나 장소의 의미를 해석하고 공간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긴요하다. 다시 말해, 지역·장소·공간을 소재로 한 작품은 실재로서의 지역을 실증적으로 구성하거나, 인본주의에 입각해 기억되고 경험되는 의미 가득한 실존의 장소를 통찰하며, 총체적 관점에서 인간·사회·환경이 교섭하는 삶의 역동적 변화를 살피는 기제가 된다(이은숙, 1992; 심승희, 2001).

한편, 문학은 사회와 지리의 변화를 유도하는 동인으로서 장소와 공간의 의미화 과정에 이데올로기로 개입하여 이미지 형성을 주도하고, 내면화된 이미지는 다시 공간행위와 실천을 촉발한다. 미개척의 영

역이 더 넓었던 고대, 중세, 근대 초의 기행문학은 그런 측면에서 흥미로운데, 경이와 신비의 동양 여행을 꿈꾸지만 일상의 여러 제약과 두려움에 포기해야 했던 대다수의 유럽인은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미지의 세계를 실제 경험한 탐험가의 일기, 편지, 메모, 약도, 시, 항해일지, 자서전 등과 함께 사실과 허구가 혼재하는 작가의 여행기를 찾았고(von Martels, 1994, xi), 이들 기행 자료는 동양에 대한 서양인의 심상을 형성한 이미지 메이커로서 역사와 세계를 바꾸는 실천을 담보했다.

중세 말 수많은 독자를 거느리며 유럽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맨더빌 여행기(The Travels of Sir John Mandeville)』(c.1357)는 세계사를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선회시킨 작품이자 서구사회의 동양에 대한 인지도도를 초월적으로 구성한 기행문학의 고전이다. 저자의 신원은 미제로 남았고 원본의 탈고 장소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저술이지만 번역서를 포함한 필사본만도 300책을 헤아릴 정도로 당대는 물론 르네상스 계몽기의 독자를 매료시켰다. 내용 대부분을 기존의 여행기, 역사서, 지리지, 백과사전, 성서, 논문 등에서 발췌·편집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타과하지 못한 전통적 허구가 다분한 이 한 권의 책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표절의 의혹을 불식할만한 창의적 구성과 함께 서양 특유의 동양에 대한 편견 섞인 상상의 지리, 즉 오리엔탈리즘의 질곡을 떨치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며 암흑의 신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지리적 지평을 확대한 데 있다.

『맨더빌 여행기』는 글쓰기의 실천을 통해 세계를 상상하고 재현하였다. 비판적 관점에서 여행은 특권을 가시화하고 여행기는 제국주의 몸짓을 함의한 텍스트 행위의 양상블로서 권력의 관계망을 형성한다. 하지만 동시에 판타지, 열망, 위반(transgression) 가능성의 플롯까지 아우른다. 특히 경계(limite)의 이원개념으로 푸코가 제안한 ‘위반’은 여행과 여행기의 후기 구조주의적 의미부여에 유용한데, 경계가 없으면 위반이 성립될 수 없고 위반 없는 경계는 무의미하다는 상호의존적 전제가 깔린다. 푸코의 경계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과는 무관하며 그

렇다고 단순한 환영의 기름막을 위반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가 가정한 위반은 양쪽을 대립시키거나 근간을 조롱 또는 와해시키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의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실천이자 수행이며(Foucault, 1977, 33-35), 안정된 주체가 정연한 합리적 상태로부터 무질서의 비합리 상태로 이행하는 통상적 행위가 아닌 불안정한 주체의 끊임없는 경계 넘기(crossing-over)를 의미한다. 맨더빌은 상호이해 궁극의 목적을 위해 유럽과 동양의 흐릿한 경계를 상징하고 반복해서 위반하였다.

여행은 모호하고 긴장된 사이공간(space in-between)을 생성하기 위해 작동하는 일종의 번역행위로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차이를 인정하고 치유하는 복합적 변증법 안에서의 순회, 즉 위반의 표상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타 문화와 자연의 재현은 경계넘기와 재정렬을 통해 다른 문화적 수사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현지주민에게 지닌 장소의 상징적 의미를 다른 상징적 가치로 대치시킬 위험, 중립을 어기고 일방의 열망을 관철하기 위한 권력과 공모를 함의한다. 그럼에도 번역의 구현으로서 여행기는 동시에 권위와 가정을 회의에 붙이는 모호한 입장을 견지한다(Duncan & Gregory, 1999, 1-5).

본고는 여행에 내재된 권력의 정당화와 권위의 부정이라는 이중성 가운데 후자의 측면을 『맨더빌 여행기』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행가 맨더빌은 교조적 중세인이 아닌 계몽적 지식인의 관점에서 동·서양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데, 필자는 자아의 우월적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타자의 모순, 부조리, 불합리, 야만성을 부각하는 대신 동양이라는 타자의 거울에 투영된 유럽사회의 종교·도덕·윤리적 타락상을 성찰하는 보편적 문화상대주의에 주목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여행기가 지리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해 사라센 세력에 점거된 성지의 회복을 갈망하는 십자군 심상(Crusade mentality)이 동방에 구축한 사제 요한(Prester John)의 허상에 유의하면서 그를 향한 고난의 순례가 대항해의 개막으로 연결된 측면을 지리적 유산으로 되짚으려 한다.

2. 중세인 맨더빌의 상상여행과 도덕지리

고대 이래 유럽인은 지중해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하여 문명의 핵심은 지중해 연안, 외곽은 야만의 공간으로 고정시켰다. 기독교 가치관이 그리스·로마의 신화를 대신한 이후로도 예루살렘이 상징적 중심으로 부상한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는 없었다. 주변부에 자리한 동양은 신화와 기독교의 도상에 의해 반인반수와 식인풍습의 비인간적 이미지로 재현되거나 신이 머물며 해가 떠오르는 지상낙원으로서 양가적으로 묘사되었다. 맨더빌(John Mandeville)은 유럽 기독교 사회의 심상지도 안에 편입된 신비의 타자를 과감하게 찾아 나선 중세인으로서 1322년에 태어나고 자란 잉글랜드 세인트 올번스(St. Albans)를 나서 성지를 순례한 뒤 페르시아 너머 카타이와 인도 등지를 돌아보는 34년의 세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다. 기억을 되살려 그간의 행적을 기록한 결과물이 바로 1357년에 빛을 본 『맨더빌 여행기』로서 술한 논란에도 기행문학 장르에서는 불멸의 고전으로 남아 있는 작품이다.

현전 필사본만도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70여 책에 견주어 4배 가까운 『맨더빌 여행기』의 권위는 압도적이다. 중세 문학서 가운데 가장 널리 확산된 서적으로서 1356~1357년 무렵 앵글로노르만어(Anglo-Norman) 또는 대륙 프랑스어로 작성된 원본은 1400년경 유럽의 주요 언어로 번역되고 1500년을 전후해 도판을 담은 인쇄본 출간이 시작된다.¹⁾ 이후로도 여러 판본이 영어, 라틴어, 독일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게일어 등 10여개 언어로 재차 번역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17세기까지 재판이 간헐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Moseley, 2005, 9; Gaunt, 2009; Higgins, 2011, xii-xiii; 성백용, 2010, 110-111). 필사자, 번역자, 개찬자, 채식사(彩飾師), 도해자, 식자공, 인쇄인 등의 손을 거치면서 판본은 단순한 편집 수준에서 새로운 텍스트로 느껴질 만큼 각색 및 윤색되지만, 짐터(P. Zumthor, 1992)의 무방스(mouvance) 개념이 암시하듯 텍스트와 구전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면

개정, 첨삭, 대체, 재배치 등의 방식으로 간단없이 변형된 중세 작품의 속성을 감안하면 텍스트의 가변성(textual mobility or variation)과 후술하게 될 저자의 익명성이 작품의 가치를 폄훼하지는 못한다. 암송, 구술, 필사 전통이 우세한 중세문학의 특수성은 텍스트의 진정성을 고집하며 ‘원본’을 복원하는 것보다 작품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를 실어주며, 책은 원저자 한 사람의 지적 자산이 아닌 연속해서 등장하는 저자들에게 의해 텍스트 상태(*etats du texte*)로서 유전된다는 입장을 숙고하게 만든다(Speer, 1980, 317-319; Desmond, 2009, 219-220). 집단저자는 역사의 순간마다 독자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책을 지속적으로 재구성·재탄생시켜 온 것이며, 『맨더빌 여행기』도 성직자, 탐험가, 지도학자, 예술가, 작가, 일반민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친 독자의 이해·목적·편견과 당대의 철학·도덕·종교를 반영해 반복적으로 개작되었다. 화자 맨더빌의 정체성이 기사, 순례자, 여행가, 신

학자, 문화비평가, 역사학자, 인류학자, 지리학자, 정치학자, 과학자처럼 다양한 범주에 걸쳐 있었던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원본에 가깝다고 추정되는 판본은 도서본(*Insular version*), 대륙본(*Continental ver.*), 개찬대륙본(*Interpolated Continental ver.*; *Liège ver.*)의 세 종류이나(표 1), 맨더빌이 저술 위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판본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 확인하지 않다. 본인을 세인트 올번스의 기사로 설명한 책 내용처럼 잉글랜드에서 앵글로노르만어로 집필했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잉글랜드의 기사 또는 기사를 사칭한 성직자가 유럽대륙에서 앵글로노르만어로 집필하였거나 프랑스의 기사 또는 성직자가 잉글랜드 기사로 행세하면서 섬으로 건너와 대륙 프랑스어로 작업을 진행하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잉글랜드 아니면 유럽대륙에서 태어나 왕실 및 종교계와 일정 관계를 맺고 백년전쟁 중 도서관에 소장된 라틴어와 프랑스어 논저를 폭넓게 참고하면

표 1. 『맨더빌 여행기』의 주요 판본

판본	특징
원본	1356년 or 1357년 앵글로노르만어(Anglo-Norman) or 프랑스어(Continental French)
프랑스어 필사본	-도서(<i>Insular</i>)본: 25본(A-N 14, CF 11), 1356~1357년경, 원본에 근접 -대륙(<i>Continental</i>)본: 30본, 1357년경, 원본에 근접, 1371년 파리 필사본 最古 -개찬대륙(<i>Interpolated Continental</i>)본: 리에주(<i>Liège</i>) 본, 일명 오자이어(<i>Ogier le Danois</i>) 본, CF 7본, 1390~1396년경
중세영어 번역필사본	-결손·핀손(<i>Defective, Pynson</i>) 본: 36본, 1390년 이전, 시기 다양, CF 도서본이 저본, 이집트 부분 12장 유실, 1496년 핀손(<i>R. Pynson</i>)에 의해 인쇄되면서 1725년까지 모든 인쇄본의 저본 -카튼(<i>Cotton</i>) 본: 1본, 1400년경, 3장 유실, 결손본과 A-N 도서본이 저본, 중세 영어 완역본, 활자본 1725년 이후 -애거튼(<i>Egerton</i>) 본: 1본, 1400~1430년경, 결손본과 유실된 왕립 라틴어본의 영역본이 저본, 가필·재배치, 인쇄본은 1889년 이후
라틴어 번역필사본	-라이덴(<i>Leiden Latin</i>) 본: 5본, 1390년 이전, CF 도서본이 저본 -로얄(<i>Latin Royal</i>) 본: 7본, 1390년 이전, A-N 도서본이 저본 -불가타(<i>Vulgate Latin</i>) 본: 40여본, 1390년 이후, 리에주 본이 저본, 다국어로 확산 -할리(<i>Harley Latin</i>) 본: 3본, 1400년경, CF 도서본이 저본 -애시모어(<i>Ashmolean Latin</i>) 본: 1본, 1400~1450년, CF 도서본이 저본
독일어 번역필사본	-미셸 벨서(<i>Michael Velser</i>) 본: 40여본, 1393년경 북부 伊에서 제작, 대륙본이 저본 -오토 폰 디메링겐(<i>Otto von Diemerigen</i>) 본: 45본, 1398년, 인쇄본은 1480~1481년 이후, 리에주 본이 저본

자료: I. M. Higgins, ed., 2011, *The Book of John Mandeville with Related Texts*, pp.187-218; M. C. Seymour, 1993, *Sir John Mandeville*, pp.38-56; C. Deluz, ed., 2000, *Le Livre des merveilles du monde*, pp.28-32(Gaunt(2009)에서 재인용).

서 종합할 수 있을 정도의 학식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의 저술(Higgins, 2011, xv-xvi) 정도로 범위는 좁힐 수 있다.

맨더빌 스스로 밝힌 출생지를 신뢰한다면 도서관은 대륙본에 앞설 것이며 그 경우 여행기 원본이 프랑스 북서방언의 변형으로서 노르만 잉글랜드(1066~1154)의 상류층 언어였던 앵글로노르만어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하등 놀라운 일이 아닌데, 1300년대만 해도 궁정문학의 전통이 여전했고 잉글랜드 지식인 사이에서 영어보다 문화적 위상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류층의 프랑스어 교육을 담당한 성직자가 흑사병으로 크게 감소한 데다 초서(G. Chaucer) 같은 문호가 등장함에 따라 문학계는 앵글로노르만어 서적을 토착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며, 그 결과 『맨더빌 여행기』도 14세기 말부터 중세영어로 번역되어 카튼 본(Cotton ver.), 에거튼 본(Egerton ver.), 결손본(Defective ver., 이집트 부분 12페이지 유실)의 결실을 보게 된다(Moseley, 2005, 11, 35-39; Higgins, 2011, 187-218).

필사와 번역이 거듭되면 책 내용과 낱양스에 미묘한 차이가 생기게 마련으로 판본의 일반화 또는 정규화는 목판, 동판, 활자를 이용한 인쇄본의 출간을 기다려야 했다. 조르그(A. Sorg)가 1478년과 1481년에 펴낸 아우크스부르크 판본, 코메노(Comeno)의 1480

년 밀라노 판본, 결손본을 저본으로 한 1496년 윈손(R. Pynson)의 인쇄본이 가지는 의미이기도 하다. 1500년 이전 『맨더빌 여행기』 인쇄본은 독일어 8본, 프랑스어 7본, 라틴어 4본, 네덜란드어 2본, 영어 2본 등이었고, 책의 대중성에 기대어 빠르게 확산된 결과 16세기에는 180여종의 인쇄본이 각국 언어로 출간되는데, 잉글랜드에서 유통된 여행기는 대부분 윈손 판본으로서 영어의 표준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Moseley, 1974, 5-8, 15, 21, 25; 2005, 31; 2015; 성백용, 2010, 110). 인쇄는 지식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으며 그로 인해 엘리트 사회는 책 읽는 대중사회에 길을 내준다.

그러면 저자로 알려진 맨더빌은 어떤 인물일까? 책에서는 세인트 올번스에서 태어나 성 미카엘 축일에 항해를 떠나 성지와 동양을 여행하였고 기억을 되살려 책을 완성한 기사 정도로 언급했을 뿐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한다(그림 1). 어쩌면 책의 대중적 성공에는 베일에 싸인 저자도 한 몫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먼 지역에 관한 신비한 지식으로 무장한 맨더빌은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은둔함으로써 막강한 권위를 주장한 셈이다.²⁾ 평론가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그의 실체를 파악하려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해명된 것은 많지 않다. 맨더빌을 실명으로 하는 잉글랜드의 기사를 당연시 하거나(Benne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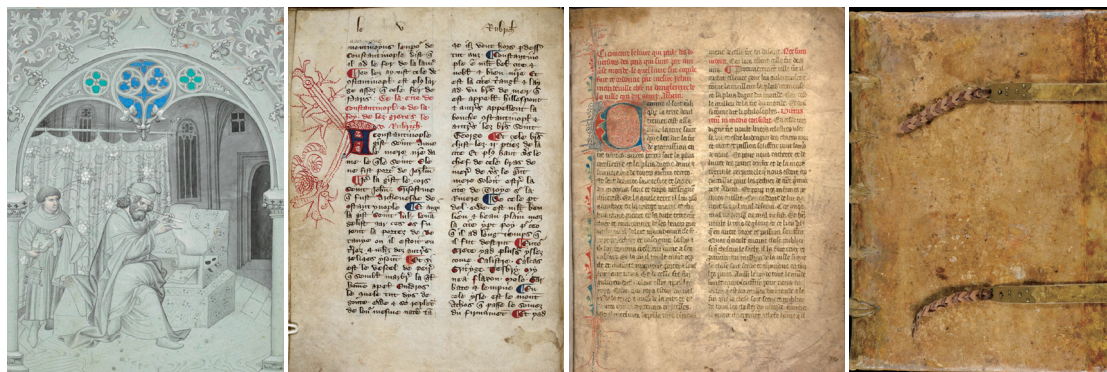


그림 1. 맨더빌과 여행기 필사본

여행기를 집필하고 있는 맨더빌과 14세기말~15세기초 앵글로노르만어 필사본, 14세기말 프랑스어 필사본, 15세기 전반 디메린겐 번역필사본 등 『맨더빌 여행기』 다양한 판본의 텍스트 및 겉표지이다(자료: Illustrations for Mandeville's Travels, Catalogue of Illuminated Manuscripts, The British Library; e-codices Virtual Manuscript Library of Switzerland).

1954) 기사가 아닌 다방면으로 박식한 잉글랜드의 평신도 또는 그들의 필명이라는 의견이 있다. 1373년 경의 리에주 판본에는 드 부르그뉴(Jean de Bourgogne)라는 인물의 권유에 따라 저자가 책을 썼다는 내용이 보이며 이를 입증하듯 1375년의 불가타 라틴어 번역본은 부르그뉴와 저자가 카이로에 있는 칼리프의 궁정에서 만난 사실을 적고 있다(Souers, 1956, 162; Seymour, 1993, 35).

부르그뉴는 지금의 벨기에 리에주(Liège)에 거주한 실존인물로서 책의 저자로도 거론된다. 이 지역의 역사가 두트르피즈(Jean d'Outremeuse)(1338~1440)가 『역사의 거울(Myreur de historis)』(c.1388) 제4권에 사실을 적었다고 하는데, 책이 소실되기 전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는 아브리(L. Abry)에 따르면 1372년 11월 12일 부르그뉴가 임종에 유언집행인으로 동석한 친구 두트르피즈에게 자신의 실명이 맨더빌이라 실토했다고 한다. 잉글랜드 몽포르의 백작이자 캄디 섬 페루즈 성에 거주한 영주로서 살인을 자행하고 세 대륙을 오가며 도피생활로 전전하다 1343년 리에주에 정착하여 의사로 일했고 사망 후 아브로이 교외의 기으망(Guillelmins) 교회에 묻혔다는 전말이다(Bormans, 1887, cxxxiii-iv; Letts, 1953, xviii-xlii).

사실을 입증하는 묘비가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증언은 설득력을 더하는데, 묘지와 교회는 프랑스혁명에 파괴되었지만 1462년 라이하르츠하우젠(J. P. von Reichertshausen)이 오스트리아의 대공에게 보낸 편지에서 몽트빌(Joannes de Montevilla)의 이름이 새겨진 라틴어 비명이 처음 소개되고, 1575년에는 벨기에의 지리학자 오르텔리우스(A. Ortelius)가 선명하게 닳인 묘비를 확인한 뒤 Montevilla를 Mandeville로 고치는 등 문안 일부를 수정한 바 있다(Hamelius, 1919, 1-2; Seymour, 1993, 32, 35). 위버(J. Weever, 1767, 332-333) 또한 『고대 장의 기념물(Ancient Funeral Monuments)』(1631)에 세인트 올번스 수도원을 소개하면서 타운 주민들이 맨더빌의 탄생지이자 사망지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장지로 추정되는 곳에 세운 돌기둥의 비명을 소개하지만, 정작 본인은 기으망 교회를 방문한 경험에 비추어 출생지는 세

인트 올번스가 맞지만 묘역은 리에주에 있다며 직접 확인한 묘비명을 실었다.

그러나 부르그뉴의 임종을 지켜본 인물이 두트르피즈 단 한 사람뿐이어서 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이 따르고 『맨더빌 여행기』의 텍스트를 개찬함으로써 대륙본의 필사전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두트르피즈 자신이 저자일 가능성까지 제기되지만(Hamelius, 1919, 8-13), 맨더빌을 부르그뉴와 두트르피즈 어느 한 사람의 실명 또는 필명으로 보는 견해에는 회의가 적지 않다(Moseley, 2005, 10, 29).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트르피즈가 『역사의 거울』에 적은 허위 내용을 진실로 믿고 1372년 부르그뉴가 사망한 뒤 누군가 기으망 교회에 묘비를 세우는 역사화 과정을 의도적으로 진행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며, 비명을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두트르피즈가 막후의 기획자라는 설이 불거진다.

여기에 프랑스어 사용자로서 라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성경에 박식한 성직자이며 예루살렘과 동방을 여행한 경험은 없지만 도서관의 책자와 성지를 오간 잉글랜드 순례자를 통해 전해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1357년경 책을 편집한 인물을 전제로, 북서프랑스 생 오마르 지역 베네딕트 수도원 생 베르탱의 대수도원장이자 역사학자인 롱(Jan de Langhe)이 후보로 추가된다. 이프르 태생으로서 1334년 무렵 8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한 수도원에 합류한 롱은 파리 대학에 파견되어 철학과 법학을 공부하였고, 복귀 후 1351년에 동양에 관한 6권의 라틴어 자료를 프랑스어로 번역해 한 데 묶어 책자로 펴냈는데, 이 안에 헤이툼(Hetoum)의 *Flor des estoires de la terre d'Orient*, 오도릭(Odorico da Pordenone)의 *Relatio*, 볼덴젤레(William von Boldensele)의 *Liber de quibusdam ultramarinis partibus* 등 맨더빌이 참고한 핵심 문헌이 포함되었다고 한다(Seymour, 1993; Lerner, 2008, 133, 137-141; Higgins, 2011, xvi; Phillips, 2013, 45; Moseley, 2015).

이상의 여러 제안을 종합할 때 『맨더빌 여행기』의 저자는 세인트 올번스에 묻힌 잉글랜드의 기사 맨더빌, 부르그뉴에게 책을 집필하도록 권유받은 맨더빌, 부르그뉴로 개명하고 리에주에 살다 기으망 교회 세

미테리에 묻힌 맨더빌, 두트르피즈, 룡, 맨더빌을 필명으로 사용한 익명의 기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확증이 불가한 상황에 원저자를 비정하는 것보다 작품이 유럽사회, 동서교류, 세계지리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맨더빌로 불린 저자(the Mandeville author)’로 이해하자는 제안이 호응을 얻고 있다. 원본과 저자의 진정성을 경직되게 고집하는 대신 끊임없이 재탄생하는 작품의 구성적 측면에 주목하여 ‘맨더빌’을 원저자, 필사자, 번역자, 편집자, 인쇄자 등 집단지자의 명명으로 대신하자는 발상이다(Higgins, 2011, xvi, xviii-xix; Tinkle, 2014, 449).

19세기 고대와 중세 문헌에 대한 치밀한 고증으로 여행기가 다양한 전거에 의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실하고 상당한 수준의 교양을 겸비한 탐험여행가 맨더빌의 이미지와 명성에 흠이 간다. 인용한 여행기, 문학서, 역사서, 백과사전, 성경, 과학서 가운데 볼텐 젤레의 *Liber de quibusdam ultramarinis partibus*는 1~14장, 윌리엄(William of Tripoli)의 *Tractatus de statu Sarracenorum*은 15장, 오도릭의 *Relatio*는 16~34장, 헤이툼의 *Flor des estoires de la terre d'Orient*은 24~25장을 서술하는 데 비중 있게 참고하였다(Higgins, 2011, 219-271).³⁾ 자연스럽게 맨더빌은 유럽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과 이야기를 표절하거나 간접적으로 활용한 데 불과하며, 그가 가장 멀리 한 여행은 도서관까지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기사십자군으로 성지를 돌아보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페르시아 너머는 결코 가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방대한 자료를 독창적으로 종합하는 것이 능력으로 인정받고 용인되던 중세문학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책의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맨더빌의 여행경험에 신뢰를 보낸 독자가 안게 된 실망은 결코 작지 않았다. 유럽인의 탐험을 계기로 속속 보고된 사실에 비추어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었던 동양이 책에 그려진 것과 다른 데서 오는 충격도 컸지만 저자의 기만에는 비할 바 못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더빌 여행기』를 전대미문의 ‘문학적 사기’로 평가절하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행기 본연의 허구적 특성을 인정해야 하

고 이국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기담과 체험담 형식의 장치를 통해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은 저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데,⁴⁾ 많은 사람이 여행기를 남겼음에도 맨더빌이 단연 돋보인 것은 그런 독자의 취향과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이라는 해명이다(Moseley, 2005, 11-12; 성백용, 2010, 131-132). 환상에 내재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독자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인지하면서도 맨더빌은 자신의 여행에 신뢰를 다지고 책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전해 내려온 낭만적인 괴물을 실제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서사 전략을 취하며, 진실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허구는 독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게 만들었다(Classen, 2013, 229-230).

『맨더빌 여행기』는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한 판타지와 로맨스를 펼치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기마상, 예수의 십자가·옷·뿔, 용으로 변한 히포크라테스의 딸, 이집트의 피닉스, 아르메니아 새매의 성, 인도의 다이아몬드, 사도 도마의 손, 칼로낙 섬의 물고기 등 소재는 각양각색이다. 이역의 문화에 관한 소개도 깊다. 그리스·페르시아·칼데아·이집트·유대·사라센 문자의 특징을 포착하고, 기손 강의 경우 계자리와 사자자리에 들면 범람하여 경작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간파하며, 이집트는 비가 적어 공기가 청정한 까닭에 다수의 천문학자를 배출한다는 결정론적 사유를 표출한다. 홍해의 지명은 해변의 붉은 자갈에 기인한다고 풀어준다. 사라센은 코란의 금기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는 농경에 소가 중요하므로 소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다는 현실적 이유를 들이댄다. 물이 쓰고 짜지만 빠져 죽지 않는다는 사해, 시리아와 인근 왕국의 전서구(傳書鳩), 자바의 생강·정향·계피·강황·육두구·메이스 등 향신료, 호수 위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1만개 이상의 다리를 갖추고 물자가 풍부한 카사이 등의 소개가 인상적이다. 카타이의 풍습, 신앙, 역참체계인 객사(客舍)의 설명 또한 사뭇 흥미롭다.

책은 기독교 세계의 성지 및 인접지역을 다룬 전반부(1~15장)와 페르시아에서 시작되는 주변지역에 관한 후반부(16~34장)로 나뉜다. 맨더빌은 ‘선한 그리

스도인이 힘을 모아 약속의 땅을 되찾고 이교도를 몰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성지탈환의 십자군 수사를 동원해 자신의 정체성을 강력히 피력하지만 여정을 거듭하면서 대립적 논조는 이내 순화된다. 이야기는 신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할 수 있는 예루살렘 순례여행의 안내 형식으로 시작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지순례의 경험을 지인에게 전하여 참배를 독려하지만 절대 다수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만큼 『맨더빌 여행기』는 정신적 순례와 성스런 감정을 공유하는 소중한 길잡이로 활용되는데(Moseley, 2015; Zumthor, 1994, 810-811), 잉글랜드를 나선 저자는 콘스탄티노플을 향해 출발하였고 키프로스를 비롯한 지중해의 여러 섬, 바빌론, 이집트, 시나이 산, 베들레헴, 시온 산, 여호사פט 골짜기, 사해, 사마리아, 갈릴리, 예루살렘, 시리아 등지를 돌아보는 신성한 경험을 소개하며 거치는 길에 목격한 다양한 풍습, 기현상, 신앙, 지형, 물산, 성소, 역사 등을 일화로 곁들인다.

맨더빌은 이미 유포된 여행담에 자신만의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터치를 가해 전혀 다른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독자를 즐겁게 하고 교육하며 꾸짖고 위로하는 한편, 세계관을 심고 다양한 메시지를 전한다. 흥미롭게도 여행길에 만난 이교도와와의 대화는 동양의 도덕·신앙적 미덕에 빗대어 기독교 세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토로하고 성찰을 촉구하는 역 오리엔탈리즘(reverse Orientalism)의 수단으로 긴요했는데,⁵⁾ 동서양의 종교, 도덕, 관습, 가치, 신념을 일상 속에서 친밀하게 대함으로써 오해와 고통을 풀고 상호이해를 돕는 한편, 타자의 유머, 풍자, 아이러니, 정치적 관념을 자아의 비판적 성찰을 위한 장치로 활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사라센 술탄의 입을 통해 기독교도의 죄악을 열거하게 함으로써 유럽의 독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과감한 선택을 한다. 왕과 영주는 약속의 땅을 되찾기보다는 이웃나라를 약탈하는 데 골몰한다고 비판다. 타락한 사제들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결혼과 고리대금업을 죄라 여기지 않고 성직을 매매하며, 그들로 인해 허영심과 탐욕 가득해진 교인들 역시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남을 속이고 율법을 욕보이기 일쑤라 꾸짖는다.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처럼 가난

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악행만 일삼으며 탐욕스럽고 신의를 지키지 않아 성지를 빼앗겼다고 단호하게 진단한다. 맨더빌은 술탄으로 하여금 신을 헌신적으로 섬긴다면 성지를 되찾게 되리라 예언하게 하지만 이교도의 힐책을 빌려 타락한 교회와 신도의 신앙적 경박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내부를 향한 냉대와는 대조적으로 비기독교인과의 차이는 중립적인 위치로 물러나 담담히 관조하는데, 심지어 성지를 되찾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벌여야 했던 사라센인조차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온순하며 정이 많고 정의롭다고 치켜세운다. 맨더빌의 자아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타자에 대한 이 같은 침잠의 태도는 앞으로의 여행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된다.

저자는 상상 속 동양의 나라와 생명체를 보고할 때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증명할 수 없다.’는 식의 수사로 여행이 실제임을 강조하는 교묘한 트릭까지 동원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여정에 포함된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기보다는 전혀 가보지 않았거나 일부 지역만을 돌아보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유럽에서 성지로 향하는 다양한 길 가운데 어디를 취하든 지나치게 될 지역을 주지하였다는 사실은 백과사전적 자료를 끌어올 수 있는 방대한 도서관에 근접해 있었음을 대변한다. 문학적 기술 이면에 여행에 소요되는 거리와 일정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대입될 때에는 숨을 죽이게 만든다. 순례여행은 깊은 종교적 신념과 정밀한 지리정보의 결합에 기초하였으며 여기서 확보한 카리스마는 동양에 대한 맨더빌의 다양한 해석과 과장과 담론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Classen, 2013, 238-248).

책 후반부는 성지 너머의 동방세계를 다룬다. 맨더빌은 여행기, 역사서, 지리서, 백과사전, 성경, 『알렉산더 로망스』, 사제 요한의 서간 등 도서관에 비치된 다양한 자료에 의거하였으며 특유의 구성으로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페르시아, 인도, 카타이를 중심으로 내륙의 군소 왕국과 해양의 여러 섬에 대한 설명이 섞이며 핵심적으로 사제 왕 요한의 신화가 펼쳐진다. 중세의 시대적 상황에서 『맨더빌 여행기』는 욕망과 함께 도덕적 차원의 교훈을 담아내야 했고 맨더빌은 이

를 위해 거시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가까워 정확하게 인식된 성지 일대의 미시공간과 달리 동양은 인지의 심상경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흐릿한 기억과 상상에 의지해 신화, 전설, 불가사의로 구성되는 한편, 천지창조에서 최후의 심판에 이르는 신학의 도상과 실재가 혼재한 세계로서 도덕률이 시험되는 무대로 인용된다(Moseley, 2005, 14-15). 권위는 단순히 과학적 사실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독자의 무한한 갈망을 채워줄 문학적 수완을 필요로 했고 미시공간의 실제지리가 거시공간의 도덕지리(moral geography)로 이행함에 따라 직관과 상상에 의한 상징적 의미의 해석이 마음껏 발휘되었다.

3. 역 오리엔탈리즘과 위반을 통한 동양과 기독교 세계의 재구성

새로운 세계와 환경에 대한 평가 및 그에 기초한 이미지는 일정부분 주체의 이념과 이상을 반영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된다(Powell, 1977, 18-19). 땅의 중심(Medi-terranean) 동쪽에 자리한 오리엔트는 자연의 법칙이 유럽과 다르게 적용되는 타자의 주변적 영역이자 상상에 의한 가공이 무한정 허용되는 신화의 공간이었으며 이교도의 차별적 영역이었다. 표면적으로 맨더빌은 유럽과 동양을 비교한 끝에 문화 일부는 유사하고 어떤 것은 현저히 다르며 중간에 모호한 지점이 자리하는 구도를 확인한다. 익숙한 서구와 이국적인 동방 사이에 놓인 그리스정교회의 영역은 서사적으로 유럽성과 비유럽성이 혼재된 경계지대를 대변한다. 아브라함 종교(Abrahamic religion)로서 기독교의 교리를 공유하여 근본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본 이슬람에 대해서도 자타의 경계짓기를 주저하며 그 너머 낯선 타자와의 차이를 드러내는 계제에 침묵에 붙인다. 동방의 이교도는 체형이 다르고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물인간으로 그려진다. 신비와 환상을 기대하는 독자의 취향에 어필하려는 의도와 함께 미추(美醜)로 구성된 우주의 미학적 조화에 부합하도록 세계문명의 중심에 대한 일종의 균형

추로서 인간이하의 타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할 때 일리아드부터 시작하는 유럽 지식체제와 권력의 야합은 동양의 체계모니적 재현이자 타자에 대한 문화적 지배의 상상행위(imaginative acts of cultural domination)에 비유되는 여행기로 체화한다. 그 안에서 관습을 달리하는 위험하고 죄악에 빠진 문화적 타자는 신화의 영역인 동쪽으로 밀어붙여 가치판단을 하거나 의식에서 사라지게 하는 오리엔트화를 겪는다(Friedman, 1994, 65-68). 서구의 정상적 외형과 매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서 신체와 윤리도덕의 기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타자 그리고 그들의 공간으로서 동양을 상정한 것이다. 동양은 높은 산맥, 광활한 바다, 물리적 거리에 의해 유럽인과의 직접적 접촉에서 벗어나 있으며 대척점의 공백은 서구에 의해 자의적으로 메꾸어진다. 타자와의 절연을 희망하면서 동시에 공간을 통제하려는 열망으로서 그곳은 발이 머리 위에 가 있는 뒤바뀐, 권력의 주체로부터 격리된 주변인의 땅으로 그려진다.⁶⁾

멀고 낯선 나라로의 여행은 페르시아에서 출발하며 인도, 인근의 여러 섬, 카타이, 사제 왕 요한의 왕국을 경유하는 긴장과 희열 가득한 경험으로 채워진다. 그리스·로마 이후 기록으로 전한 인도, 환상과 공포가 교차하는 성서적 동양, 몽골 평화시대에 사신·선교사·상인이 목격한 동방의 모습이 중첩되는 특이한 경험이다. ‘저 너머에는 다양한 나라와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지만 나도 직접 다 보지는 못했다.’며 애둘러 표현하는데, 해변으로 몰려든 물고기 떼, 조장, 양털 달린 암탉, 반인반수, 그림자 발 종족, 외눈박이, 피그미, 자웅동체의 인간, 식인종 등 기괴한 현상과 종족으로 채워진 동양은 판타지 세상으로서 맨더빌의 상상과 독자의 기대가 절묘하게 맞물린다. 유럽 중심에서 이탈할수록 무질서한 야생의 자연으로 전이한다는 오리엔탈리즘의 투사일 수 있지만 문학적 상상에 의해 창출된 이미지로서 맨더빌 자신이 그런 세계를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먼 지역에 대한 지식이 권위로 인정받던 중세사회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여행에 나선다는 것은 권력을 얻기 위한 일종의 과시적 행동이었었고 일반인이 닿을 수 없었던 동양은

따라서 공포와 위협으로 가득한 세상이어야만 했다(Helms, 1988, 18).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실재와 허구를 넘나드는 이미지 각색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며 이는 고대 이래 문학의 전형이었다.

그리스인은 신화 속 괴물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말의 귀와 꼬리를 가진 사티로스, 반인반마의 켄타우로스, 뱀사람을 유혹해 과선시킨 사이렌, 추녀의 상반신과 새의 날개·꼬리·발톱을 가진 하피 등으로 장엄화하고 인도에도 괴수인간을 창조하여 서구의 정신 세계에 포함시켰는데, 기원전 5세기 경 페르시아 왕실 주치의 크테시아스(Ctesias de Cnido)의 *Indica*로 소급된다. 책에는 학과 싸우는 피그미, 한 발만으로 작렬하는 태양을 가리고 빠르게 이동하는 사이어포드, 개의 머리를 한 카노폴로스가 묘사된다. 머리 없이 어깨 사이에 얼굴이 있는 종족, 30세에 하얀 머리카락이 검어지며 여덟 손발가락을 가진 종족, 팔꿈치와 등 전체를 덮을 만큼 큰 귀를 가진 종족, 거인, 긴 꼬리 종족도 있었다. 이후 기원전 326년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원정을 계기로 찬드라굽타 왕조에 대사로 파견된 메가스테네스(Megasthenes, 350BC~c.290BC)가 *Indika*에서 기괴한 유형을 추가하였다.⁷⁾ 크테시아스와 메가스테네스의 괴수인간은 코뿔소를 형상화한 유니콘처럼 관찰에 입각한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도의 서사시를 포함한 문학적 상상에 기원을 둔다(Wittkower, 1942, 159-164).

중세기 괴물의 주된 출처는 플리니우스(G. Plinius Secundus, 23-79)의 *Historia naturalis*로서⁸⁾ 3세기 저술인 솔리누스(G. J. Solinus)의 *Collectanea rerum memorabilium*에 인용되어 대중적 인기를 누렸으며, 성서의 권위와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괴수인간을 아담의 제보로 연결시켰고 이시도루스(Isidorus Hispalensis, 560~636) 역시 *Etymologiae*에서 괴물성을 창조의 일부로 설명하였다(Wittkower, 1942, 166-168). 『알렉산더 로망스』를 비롯한 여러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직접적 위협을 제기할 수 없는 먼 곳에 있어 공포보다는 낭만의 소재였던 괴물인간은 문학을 넘어 〈엥스토르프 지도(Ebstorf Map)〉(c.1240)에 담기고, 1300년 무

렵의 마파문디 〈헤리퍼드 지도(Hereford Map)〉 또한 변방에 괴수와 기이한 20여 종족을 그려 중세인의 세계관을 재현하였다(Edson, 2007, 17-18; 박용진, 2014, 363-366).⁹⁾ 이처럼 괴물종족은 공포와 경이가 수반되는 장엄미와 낭만을 통해 동양을 신비화하는 장치였지만 여행자들이 실제 대면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단지 외형과 사회적 관습에서 그들을 기괴하는 유럽인과 달랐을 뿐이다.

식인관행도 동양에 대한 오랜 스테레오타입의 하나였다. 맨더빌이 소개한 사례는 꽤나 다채롭다. 사마리 섬에서는 충격적으로 상인들이 관매한 아이들을 살찌워 잡아먹고 나쿠메 섬의 카노폴로스는 전장의 포로를 먹으며 거인종족 또한 식인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병자를 자연사하게 내버려두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로 하여금 물어 죽이게 하고 사자의 인육을 취식하는 것은 카폴로스 인근 섬의 관습이었다. 돈돈 섬의 경우 동료가 병에 걸려 죽게 되면 아들이나 아내를 함께 질식사시키고 동료의 시신을 잘게 조각내 지인들과 나누었으며, 땅속의 벌레에게 잡아 먹히면 고인의 영혼에 큰 고통을 안긴다는 현지인의 믿음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으로 맨더빌의 이해를 대신한다. 부친의 사체를 잘게 잘라 새의 먹이로 제공하고 머리는 지인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며 해골로 음료 잔을 만들어 평생 기억하는 리봇 섬의 풍습에 대해서도 저자는 경건한 의식으로 승화된 행위라며 암묵적 동의를 표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 혐오의 정서는 부인할 수 없지만 내부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려는 진중한 태도가 엿보인다.

맨더빌은 상상으로 동양을 지배하는 유럽의 왜곡된 지식을 거부하고 자아와 타자는 유사하다는 복선을 깔다. 이교의 우상과 그리스도교의 성상은 본질에서 다를 것이 없으며 가족의 사체를 먹는 혐오스런 관행을 예수의 성체를 나누는 기독교 전통과 ‘거의 동등한 차이(nearly-the-same difference)’로 해석한 것이다(Tinkle, 2014, 469-470; Fleck, 2000, 381-392). 그의 중립적 태도와 논조는 전도된 가치를 차분하게 나열하는 대목에서 예견되었는데, 예를 들어 태양의 열기로 피부가 검게 그을린 무어인에게 검은 천사는 흰 악마와 대비되고, 칼데아 왕국에서는 아름다

운 남자와 더럽고 흉측한 추녀가 각을 세우며, 아마조니아 여인국은 남자에게 지배권을 맡기지 않고 선거를 통해 가장 현명하고 용감한 전사를 여왕으로 선출한다. 폴롬브의 여자는 포도주를 마시고 수염을 깎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고, 라마리 섬의 나체 거주민은 의복을 착용한 이방인을 비웃는다. 우스꽝스럽지만 이런 뒤바뀐 장면은 저자의 내면에 깔린 문화상대주의를 투사한다.

물론 맨더빌에게서 오리엔탈리즘의 잔영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은 힘을 모아 예수의 존귀한 피로 물든 예루살렘에서 이교도를 몰아내야 한다며 결의를 다지고 그리스도교가 아니면 완전한 신앙은 못 된다는 노골적인 언사도 확인된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에게 나타난 나사렛 교회 옛 기둥에서 순례자의 공물을 받는 사라센인을 사악하고 잔인하다며 혹평한다. 그러나 현실은 직시해야 했다. 군사적 승리를 신의 선택으로 받아들일 때 과거 유대인이 차지했던 성지는 기독교의 유산으로 이전되자마자 이내 무슬림에게 장악된 상황인 것이다. 연이은 십자군원정의 실패에서 이교도에 은총이 내려지는 모순을 해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맨더빌은 군사적 패배를 최종 승리를 향한 과정으로 합리화한다. 신이 사랑하는 자 또한 벌을 받으며 사라센인은 신의 징벌을 대신하는 요원에 불과하다는 논리로서(Tinkle, 2014, 450, 452, 458) 훗날 신이 성지를 돌려줄 것이라 앞서 거론한 술탄에게 인정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독자의 믿음을 강화한다.

유대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파덴 섬의 독 나무를 이용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을 독살하려 한 민족으로 낙인찍는다. 유대교는 기독교를 있게 한 과거이자 정체성의 원천이며 구약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현재이지만, 맨더빌에게 유대인은 구원이 불가능한 악이었다. 증오에 가까운 반감으로 점철된 유대인의 타자화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자리하여 불편했던 데서 주변화를 또한 요청하였고 신화의 지원까지 얻어내는데(Fleck, 2000, 395-397; Tinkle, 2014, 443-445, 459-462), 성경의 영적 의미를 부정한 유대인에게서 선민의 지위를 빼앗고 알렉산더 대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곡(Gog)과

마곡(Magog)에 가두게 한 것이다. 동쪽은 태양이 뜨는 신의 거처이자 인류가 창조된 근원이지만 인간은 죄를 지어 쫓겨났고 지상낙원을 다시 찾으려면 반드시 곡과 마곡을 지나야 했다. 사자가 생전에 지은 죄의 판결을 기다리는 지옥과 천당中间的 연옥, 즉 영혼이 위험을 무릅쓰고 통과해야 할 불속 같은 상태에 비유되는 공간으로서 이곳에는 카인의 죄로 인해 기형으로 태어나 추방된 괴물종족이 잠적한다(Friedman, 1994, 75; Le Goff, 1984, 2-8; Phillips, 1994, 47-50). 곡과 마곡의 유대부족은 동방의 낙원으로 향하는 길에 극복해야 할 괴물인간으로 유럽인의 인지 지도에 각인된 것이다.

이 같은 내부 오리엔탈리즘(internal Orientalism)의 입장을 제외하면 맨더빌은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용인하고 절충하려는 자세를 흐뜨리지 않는다. ‘모든 땅과 섬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고 그들이 가진 종교와 믿음도 다르다.’는 발언에서 기류가 느껴진다. 동방정교와 네스토리우스교가 분파적인 이단에 불과하다는 로마 교회의 비판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속내를 내비치며, 무슬림의 자비와 보시 앞에서 기독교의 도덕적 우위는 회의에 붙여지고, 동양의 식인 풍습·나체주의·일처다부제에 합리적 근거가 부여되며,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도 우상을 향해 오체투지로 참배를 강행하는 고행 앞에서 숙연해진다. 신이 누구를 사랑하고 싫어하는지 정해진 것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선언하며, 동방에 대한 모든 것이 비합리적이고 기이한 것만은 아닌 것처럼 유럽에서 정상인 것도 관점을 바꾸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고 풍자한다. 타자에 대한 관용과 아량은 『맨더빌 여행기』 뒷부분으로 갈수록 강화되어 그들의 금욕적 삶은 감동을 낳고 카타이의 선한 정부는 유럽 내부의 다툼과 대비되며 사제 요한의 이상적인 기독교 왕국은 선망된다. 이교도의 인신공양과 우상숭배를 봉헌의 의도에서 동정과 열린 마음으로 대하며 기독교인 이상으로 하늘을 무겁게 여기고 우상을 위해 죽음까지 감수하는 데 경탄한다. 세상이 아무리 기괴해도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없다는 의견은 급진적이기까지 한데(Moseley, 2005, 24-28), 괴물인간과 식인종이 득실대는 야만의 세계를 찾아가는 여행임에도 오

히려 낭만적일 수 있는 이유이다.

관용의 측면은 그밖에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카나섬에서는 영웅, 태양, 달, 불, 나무, 뱀 등의 모상과 우상을 숭배하지만 주민은 그것이 천상의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적극 대변한다. 사원에서 잔반을 원숭이에게 제공하는 관행에 대해 자력으로 생존이 가능한 빈자보다 동물로 환생하여 참회의 고통을 겪는 영혼을 배려하는 것이 더 자비롭다는 현지인의 관념을 풀어준다. 오리엔트를 향한 관용은 이내 선망으로 바뀌며 브라만 섬에서 정점에 이른다. 선량하고 진솔하며 신앙심이 두터운 현지인은 도덕적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오만하거나 탐욕스럽지 않고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않으며 탐식을 일삼거나 음란하지 않다고 칭송한다.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 등 10계율을 충실히 이행하는 ‘믿음의 땅’으로 부르고 싶어질 정도다. 섬은 도둑, 살인자, 매춘부, 거지가 없는 순수한 사람들만 사는 곳으로서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신은 선한 행실을 사랑하여 재해, 전염병, 전쟁,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 명을 다하도록 허락한다. 맨더빌은 ‘신은 교리에 상관없이 선의와 진심으로 순종하고 받드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로 그들의 진솔한 생활을 예찬한다. 브라만족은 기독교가 오래도록 잊고 있던 미덕을 대리 발견할 수 있는 선민이었고 그들의 신앙 체계는 신도 인정하는 보편종교였던 것이다(Tinkle, 2014, 463, 465).

맨더빌은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의식의 필터를 거쳐 동방의 관습과 신념을 평가하고 기독교 세계의 정치, 종교, 문화에 일침을 가하는 동서양 교류를 실천한다. 사제 요한이 다스리는 영토 가운데 선거가 치러지는 섬은 인상적인데, 왕은 귀족이나 부자가 아닌 예의바르고 품행이 단정하며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했다. 판결은 신분, 지위, 재산, 감정과 무관하게 죄에 따라 공평하게 내려지며, 국왕은 영주, 고문, 중신의 동의 없이 사형을 명할 수 없고 심지어 자신도 죄를 범하면 단죄된다. 대칸은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황제이지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것을 막지 않고 종교 선택의 자유를 허락한다며 부러움을 표하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비옥하며 물

자가 풍족한 만키 왕국의 2,000 도시 가운데 라토린은 파리보다 크다며 유럽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요컨대 『맨더빌 여행기』는 타자의 문화에 대한 관대한 이해와 개방적 태도의 산물이다. 편견에 매몰됨이 없이 성찰을 통해 대안적 이상사회를 꿈꾸게 하는 일탈의 공간이 바로 동양임을 자각한 것이다. 그곳에서 마주한 선한 야만인의 원시적 유토피아는 서구 문화의 우월성과 익숙한 질서에 대한 회의 및 개혁의 이상을 투사하기 위한 가상현실이자(성백용, 2010, 134) 자성의 거울(self-critical mirror)이었다. 동양은 저자가 속한 사회의 단순한 전도, 유럽의 거시공간적 상상에 의해 고안된 대항사회(counter-societies)를 초월한 자율적 타자로서 서양의 신학적, 도덕적 현실을 비판하고 참회를 이끄는 동시에 기독교적 공간을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게 한다. 맨더빌이 타자를 구성하고 제시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푸코의 위반으로서 익숙한 자아로부터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타자 사이의 경계를 의식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양자의 직접적 대면이라는 실천을 담보하는 전략이었다(Foucault, 1977). 비록 상상에 그쳤다 하더라도 맨더빌의 여행은 위반이었고 미지의 신화적 세계를 가로지르며 완성한 그의 여행기는 경계와 한계를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위반의 표현(verbalization)이자 텍스트화(textualization)였다. 저자는 미시공간적 지식과 거시공간적 추측 사이의 모호한 벽을 넘어설 것을 권고하며 상호배타적으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대신 문화적 이해와 교섭이 가능한 지점으로 인도한다. 타자를 단순히 거울사회 또는 정치·종교적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차이의 에피스테미 경계를 넘어 미지의 것과 자발적으로 교류하는 호기심의 에피스테미로 전환된 것이다(Sobecki, 2002, 329-338, 342-343). 르네상스의 무한한 발견에 요구된 결정적 전환이었다.

4. 사제 요한의 상상 왕국

호기심에 추동된 지적 탐구정신의 반영으로서 『맨

터빌 여행기』는 중세의 성지순례로부터 르네상스기 지리상의 탐험으로의 이행을 상징한다(성백용, 2010, 132). 여행기 집필 당시 동양의 중심을 차지한 원·4 한국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는 평화국면을 안착시켜 14세기 중엽까지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을 통한 활발한 동서문물 교류를 이끌었다. 카르피니와 루브룩에 이어 마르코 폴로와 오도릭이 그 길을 오갔고 여행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제 요한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슬람 세력의 패권 확대로 성지회복의 꿈이 요원해질수록 역사적으로 유럽인의 정신세계에 잔상으로 남아 있으며 『맨더빌 여행기』가 생생하게 묘사한 사제 요한에 대한 열망은 강렬해졌고 이는 동방으로의 탐험을 인도한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다. 비록 허상을 향한 탐문이었지만 신향로 개척이라는 예기치 못한 세계사적 성과를 함축한다.

통치행위와 관련해 맨더빌은 폭력적이지 않으면서도 권위를 유지하는 이집트의 술탄, 아마조니아의 여왕, 카타이의 대칸, 사제 왕 요한에 관심을 표한다. 특히 낙원 인근 카타이의 대칸과 사제 요한은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하는데, 선의 가득한 정부는 교황의 탐욕과 무소불위의 권위를 비판하는 거울이 되고 화려한 궁정은 유럽 못지않은 풍요를 과시하여 선망의 대상으로 다가온다. 성지 바깥 시원의 야생지 한 가운데 들어선 대칸의 왕국과 기독교 성군 요한의 왕국이야말로 성숙의 분열이 첨예한 유럽이 본받아야 할 유토피아에 다름 아니었다. 동방 어딘가에서 강력한 왕국을 이끌고 있을 사제 요한은 무슬림과 이교도로 인해 위기에 빠진 기독교세계를 구원해줄 메시아로서 12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유럽인의 심상에 깊게 각인된, 그러나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 신기루 같은 존재였다. 교황, 국왕, 영주, 성직자, 평신도는 그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성지로 진격할 것이라 굳게 믿었다. 맨더빌은 그의 호화로운 궁궐과 인도 및 인근 72개 지방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왕국을 돌아보면서 사제 왕의 위엄을 확인하였고 보석 박힌 십자가를 앞세우며 전투에 나선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전하며 기대감을 심었다. 신비의 사제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여행가와 선교사가 그의 궁정으로 향했고 사라센에 대적할 수 있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외교사절이 파견되

었다.

사제 요한의 왕국으로 인도가 지목된 데에는 성도마(St. Thomas)의 전설과 위경인 도마행전이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도와 순교의 영예를 안고 돌아오리라 하는 예수의 예언에 따라 인도로 건너가 가난하고 병약한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다 끝내 죽임을 당한 성인의 이야기다(윤기향, 2007, 63-71). 힌두교 지역으로 기독교를 전파한 도마의 신화는 그가 안치된 인도 동남해안 밀라포르의 산토메 성당으로 순례를 촉발하지만 이내 위기에 처한 유럽을 구원해줄 사제 요한의 소문에 덮인다(Phillips, 1994, 37). 막강한 권력과 부를 소유한 동방의 통치자로서 이슬람에 포위된 기독교권을 구원하기 위해 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제 요한의 탐문은 성지가 함락 위기에 처한 12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식인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복음을 만방에 설교하였고 동방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며, 성지순례 차 내방한 동양의 기독교인과 조우했을 때 확신했다. 동방의 성직자 입에서 사제 요한과 그의 기독교 왕국이 언급되기도 하였다.¹⁰⁾

역사적으로 사제 요한의 이름은 오토(Otto von Freising, c.1114~1158) 주교의 『두 도시의 역사(Historia de duabus civitatibus)』에 처음으로 명확하게 등장한다. 1144년 쟁기가 이끈 이슬람 세력에 의해 십자군의 중요한 거점 예데사가 함락된 이듬해 교황 에우제니오 3세와 각국 군주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교황청을 방문한 자발라의 주교 위고가 전한 소식을 적은 것인데, 극동의 네스토리우스교도 사제왕(Priest-king) 요한(Iohannes)이 페르시아와 메데스를 지배하던 사미아르디 형제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진군하여 티그리스 강에 이르렀으나 도하가 여의치 않아 회군했다는 것이다. 위고의 전언은 1141년 9월 금에 쫓겨 서쪽 카슈가리아까지 퇴각하다 카라칸조를 점령해 카라키타이(黑契丹, 서요)를 건립한 耶律大石과 셀주크의 술탄 산자르가 사마르칸드 인근 초원에서 벌인 전투의 역사적 사실이 교묘하게 접목된 신화였다. 전투에서 승리하여 이슬람 정벌자로서의 명성을 얻은

야율대석은 불교도였지만 무슬림과 대항하는 사람은 암묵적으로 기독교도라 여긴 유럽인은 동방에서 출현한 그에게 네스토리우스파의 옷을 입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서방에 전하였고(Beckingham, 1996, 2-4; de Rachewiltz, 1996, 61-65; Jackson, 1997, 425; 이영찬, 1996, 180-181; 김호동, 2002, 11-14; 정수일, 2002, 239; 남중국, 2013, 81-86),¹¹⁾ 사제 요한의 신화는 그렇게 탄생했다.

무성한 소문에도 실체가 불분명했던 지상의 구원자 사제 요한은 교황이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친서를 소지한 사절을 파견할 정도의 실존인물로 부상하는데, 결정적 사건은 비잔틴의 황제 콤네누스 앞으로 발송된 서한(The Letter of Prester John)이었다. 황제의 재임기간(1143~1180년)과 1165년경부터 유포된 정황이 유일한 단서일 뿐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 편지였지만 성지를 둘러싼 공방 가운데 전해졌기에 극도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스어 원본은 유실되고 여러 언어로 번역된 필사본과 인쇄본만이 수도원과 도서관에 전하는데, 짧은 문서이기에 다양한 계층의 독자가 접할 수 있었고 중간에 위조, 변조, 첨삭을 거쳤으며 수신자 또한 교황, 신성로마제국 황제, 각국의 군주로 확대된다. 편지에서 자칭 요한은 인도 3국의 광활한 영토, 72명의 왕을 휘하에 둔 막대한 권력, 젓과 꿀이 넘치는 풍요, 32세의 나이로 무병영생할 수 있게 해주는 올림포스 산 아래 신비의 샘, 진귀한 동식물, 괴수인간 등의 과장된 언설과 함께 대군을 이끌고 성모를 방문해 적을 패주시키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중세 말 유럽의 국제정세와 지리상의 발견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Bar-Ilan, 1995, 294; Beckingham, 1996, 8-12; de Rachewiltz, 1996, 65; Uebel, 2005; 김호동, 2002, 28-36).

치밀하게 위조된 까닭에 서신은 호소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유럽인에게 진지하게 다가왔다.¹²⁾ 고전에 반복적으로 투영된 환상의 세계에 중세의 종교 이미지가 더해짐으로써 십자군의 충동을 넘어선 인기를 누렸는데, 이국적이고 찬연하며 풍요로운 기독교 왕국을 갈망하는 독자는 모든 여행자와 순례자가 환대받고 가난, 약탈, 아침, 거짓말, 탐욕, 분열, 불륜, 악이 없는 사제 요한의 도덕적 이상향에 환호하였다. 교

황 알렉산드레 3세는 1177년 사제 왕에게 사절을 보내 답신을 전하고 공식적으로 친교관계를 맺고자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하지만 친서 전달의 중책을 맡은 주치의 필리프가 도중에 실종되어 미완의 사명으로 끝나고 말았다(de Rachewiltz, 1996, 65; Phillips, 2013, 47; 남중국, 2014, 115-117). 이후로 한동안 사제 요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187년에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음에도 유럽은 동방 기독교 군주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성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잉글랜드, 프랑스, 신성로마제국이 연합한 3차 십자군원정이 실패하면서 그의 이름은 재차 환기되며, 교황 인노첸티우스 3세가 5차 원정을 결의하고 1218년에 원정대가 이집트 다미에타를 점령한 상황에서 사제 요한 또는 그의 아들이나 손자로 추정된 인도의 다윗 왕이 페르시아로 진격하여 무슬림을 격퇴하려 한다는 낭보가 들려왔다. 전문의 주인공은 나이만족(乃蠻部) 왕자로서 카라키타이의 耶律直魯古를 폐위시키고 등극한 뒤 칭기즈칸에 패한 쿠출루크로 추정되었으나(정수일, 2002, 239), 사건의 추이에 비추어 실제 인물은 1219년에 화레즘 원정에 나선 칭기즈칸이었다. 소문의 진원인 중앙아시아 네스토리우스교도의 입장에서 신도인 쿠출루크는 과거 야율대석에게 기대된, 십자군과 연합해 이슬람을 패주시킬 사명을 완수할 책임자였지만 이미 칭기즈칸의 손에 사망한 상태였다.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칭기즈칸과 쿠출루크의 이미지를 섞어 강력한 인도 기독교 왕국의 다윗으로 둔갑시켰던 것이다(de Rachewiltz, 1996, 65-67, 72; 김호동, 2002, 38, 40-43, 60-61, 74-79; 남중국, 2013, 99-102). 구원부대를 고대하며 펼친 원정대의 작전 실패와 칭기즈칸의 후사인 오고타이와 바투의 무자비한 유럽 침공으로 일말의 기대는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지지만, 이는 단지 대칸이 사제 요한은 아니라는 것일 뿐 사제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였다.

몽골 평화시대(Pax mongolica)의 자유로운 교류 국면에 편승해 교황 인노첸티우스 4세는 1245년 북음전파와 외교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사절단을 몽골의 대칸 구육에게 파견하면서 사제 요한을 수소문하

였고, 도미니쿠스 수도사 롱주모(A. de Longjumeau)는 케라이트족 옹 칸이 그토록 찾던 장본인으로서 이미 1203년에 칭기즈칸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넓은 영토를 상실하였다는 실망스런 소식을 전한다. 마르코 폴로(1254~1324) 역시 딸을 신부로 맞고 싶다는 칭기즈칸의 청을 거절하며 결전을 벌인 옹 칸을 사제로 지목하였다. 반면, 도미니쿠스 수도회의 특사로서 1253년에 카라코룸의 대칸 몽케를 알현한 루브록(G. de Rubrouck, c.1220~c.1293)은 막강한 나이판족을 이끌고 스스로 왕이 된 인물이 사제 요한이고 옹 칸은 그의 형제라며 롱주모 및 마르코 폴로와 입장을 달리하였다. 탁발수사 오도릭(c.1286~1331)은 사제 요한이 대칸의 영역에 있다고 밝힌 마지막 여행가로서 카타이 서쪽 50일 여정 거리에 있는 초라한 나라의 국왕으로 보고하였다(김호동, 2000, 190; 성백용, 2011, 15-16; 남중국, 2014, 122; de Rachewiltz, 1996, 73; Hamilton, 1996b, 239, 241, 247-249).

이례적으로 카르피니(G. da Pian del Carpine, c.1182~1252)는 칭기즈칸의 아들 오고타이가 소인도(Lesser India)를 정복한 다음 남쪽 대인도(Greater I.)를 침입했을 때 ‘그리스의 화염’을 사용해 그를 격퇴한 현지의 왕이 사제 요한이라 설명하였고(Hamilton, 1996b, 248), 맨더빌 또한 하늘 아래 최고의 군주로서 인도 일부와 인근의 도서 왕국을 바르게 통치하며 계율에 따라 신실한 삶을 영위하는 풍요로운 기독교 왕국의 권력자라 묘사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출현했던 사제 요한이 인도로 행방을 달리한 뒤 대항해 시대를 즈음해서는 재차 에티오피아로 옮겨간다는 사실이다.

황제 콤네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제 요한은 3인도를 통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재확인 차 몽골제국의 일부였던 제1인도(First I.)를 여행한 외교사절, 선교사, 상인, 탐험가의 보고는 기대를 저버렸다. 가능한 후보자는 이미 사망하고 후손이 대칸의 신하로 봉직하는 상황에서 화려하고 막강한 왕국이 설 자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사제 왕은 카르피니의 추론대로 대칸의 영역 밖인 제2인도(Second I.)를 통치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대륙 깊은 곳으로의 여행에서 그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고, 귀항길에 해상으로 남인도

를 방문한 마르코 폴로의 경우 성 도마의 유적만을 보았을 뿐이며, 한말라바르 해안에서 네스토리우스 공동체를 찾아낸 선교사들도 위대한 기독교 군주와 끝내 대면하지 못했다(Hamilton, 1996b, 249).

남은 것은 제3인도(Third I.), 즉 에티오피아 일대로서 대륙의 윤곽이 명확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접경지역으로 인식된 곳이다. 고대와 중세에 아시아는 나일 강 또는 알렉산드리아 서부를 경계로 리비아(아프리카)와 분리되었으며 이 경우 이집트 일부와 그 이남은 아시아로 기술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인도 소속으로 간주되어 그곳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상아와 흑단이 ‘인도산’으로 소개되는가 하면 동일 상품이 실제로 인도로부터 유입되어 혼란이 있었지만(de Rachewiltz, 1996, 61),¹³⁾ 에티오피아는 충분히 사제 요한이 있을 법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13세기 말 시점에 그에 거는 기대는 절실하지 않았다. 이슬람 세력이 미약한 데다 대칸 중에는 네스토리우스 아내 또는 모친을 가족으로 두어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본토를 여행하도록 관용을 베풀었기에 사제 요한에 대한 믿음을 되살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수소문이 재개된 것은 시리아 본토의 십자군 근거지가 1291년 맘룩에게 함락되고 1295년에 페르시아 일한국의 가잔 칸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돌변한 지정학적 상황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해 1324년에 *Mirabilia descripta* 4·5·6권에서 각각 북인도를 의미한 소인도(I. the Less), 남인도를 가리킨 대인도(I. the Greater), 아프리카 혼 지역에 해당하는 제3인도(Third I.)를 소개한¹⁴⁾ 도미니쿠스 수도원 소속 남인도 킬란의 주교였던 조단(Jordanus de Severac)은 서양에서 처음으로 솔로몬의 후손인 사제 요한이 제3인도를 통치한다고 설명하였고(Hamilton, 1996b, 252) 그의 견해는 널리 수용된다.

기억에서 지워지기 직전 사제 요한은 동아프리카로 이동해 새롭고 생산적인 국면에서 전설적 삶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때마침 일대의 교역로를 장악한 강력한 기독교 권력이 에티오피아에 등장하였고 신왕조를 개창한 예쿠노아믈락(Yekuno Amlak, 재위 1270~1285)은 자신을 솔로몬의 후손으로 자칭한 바 있다. 연합의 움직임도 구체화되어 1310년경 이슬람



그림 2. 에티오피아 황제 사제 요한
(1599, by Luca Ciambelano)

자료: The British Museum, London, England

과의 전투를 준비하던 황제 위렘라드는 ‘스페인’ 국왕에게 30여명의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계승자인 압다시오는 정복을 이어가 아프리카 혼의 7개 이슬람 공국을 복속시켰다(Hamilton, 1996b, 250-253; 그림 2). 유럽은 새로 등장한 기독교 세력과의 동맹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으나 국제정세는 불리하게 돌아가 1322년에 일한국의 아부사이드가 맘룩의 술탄과 평화조약을 맺었고, 이런 암울한 시점에 『맨더빌 여행기』는 다양한 문헌과 콤페누스 앞으로 발송된 편지의 진술을 짜깁기하여 꺼져가는 사제 요한 신화의 불씨를 살리려 애썼지만 오스만은 동유럽으로 진격해 1393년경 다뉴브 강변에 이르렀으며, 아시아 광활한 지역은 일한국의 분열과 함께 페르시아의 강자로 부상한 티무르(Tamerlane, 1369~1405)의 차지가 된다. 동방의 우군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서 에티오피아의 위대한 기독교 황제는 큰 위안이었지만 조율된 군사전략이 성사되기는 어려웠는데, 이슬람 세력에 의해 페르시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다(Hamilton, 1996b, 253-254).

돌아보건대 사제 요한은 십자군 심상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고 그의 상상의 왕국은 강력한 이슬람 정적에 맞서고 있는 자신들을 후원해줄 희망의 상징이었다. 성지를 되찾는 종교적 소명을 다한 후 누리게

될 풍요와 평화의 유토피아를 꿈꾸게 만든 인물이기
에 수도사, 상인, 탐험가, 외교사절은 동방 깊은 곳을 여행하며 집요하게 그를 찾았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지만 대가는 충분하였다. 여행자들은 미지의 세계에서 생소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관찰하며 기록으로 남겼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대륙, 자연, 민족, 문화, 취락 등에 관한 묘사는 세계의 윤곽을 보다 명료하게 하고 신선한 자극을 부여하였다.

5. 맨더빌 여행의 지리적 유산

몽골 평화국면에 선교, 외교, 통상, 탐험 목적의 아시아 여행으로 동양에 관한 보다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중세가 끝을 향해가는 시점에는 사제 요한과 그의 왕국에 대한 허구적 믿음이 열대 아프리카 이남의 윤곽을 그려내고 지도에 빠져 있던 대륙을 새로 추가하는 의미심장한 변화를 초래한다. 동양에 대한 이미지 형성을 주도하고 대항해 시대의 전기를 마련한 『맨더빌 여행기』를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험으로 획득한 실제적 지식에 의해 사제 왕 요한의 존재가 회의에 붙여지고 전통 동양관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맨더빌은 영적 호기심을 추동하고 지구 구체설의 과학적 진단으로 유럽으로부터 인도에 이르는 신행로 개척의 실천을 성사시켰다.

중세 과학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대척점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다는 발상을 비웃었고 8세기부터 그런 믿음 자체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Wittkower, 1942, 182). 그러나 맨더빌은 성서, 추론, 직·간접 경험에 입각해 지구는 둥글고 성지 예루살렘 반대편 동방에 지상낙원이 있으며 세계일주가 가능하다 믿는 동시에 연장선에서 모든 땅과 섬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토로하였다.

“배를 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세상 모든 땅들을 돌아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될 것이다. ... 이쪽에

있는 것은 저쪽에도 있다. ... 인도 황제인 사제 요한의 나라는 우리 아래 맞은편에 있다. ... 우리가 밤일 때 그들은 낮이다. ... 세상 어디에 살든 똑바로 걸을 수 있다. ... 고대 천문학자의 말에 따르면 둘레는 2만 425마일이다. 좁은 식견으로는 그보다 더 큰 것 같다.”(주나미, 2014, 219-221)

맨더빌은 자연법칙이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고 인류문화의 공통된 특성을 강조하였다. 북쪽 하늘의 움직이지 않는 ‘길잡이 별’ 트란스몬타네와 대척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이어 뜨거워 지날 수 없다는 열대는 허상일 뿐이라 바로잡고, 천문학자가 제시한 지구의 원주 2만 425마일 대신 자신만의 방법으로 3만 1,500마일로 조금 더 길게 계산해낸다. 실측치에 근사한 에라토스테네스(c.275BC~c.195BC)의 2만 5,000마일보다 과장된 추정이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전제 하나는 분명했다. 15세기 말 세계사적 탐험을 후원·계획·실행했던 주역들은 지구가 둥글고 따라서 나침반만 있으면 일주가 가능하며 세계 어느 곳이든 거주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준 맨더빌에 힘입어 대서양을 횡단하고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 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시대를 앞서간 르네상스 인간형을 그에게서 찾아보게 된다.

『맨더빌 여행기』는 출간 후 200여 년 동안 탐험가, 선교사, 상인, 학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책 안의 전설과 무용담은 열정을 깨웠다. 다빈치가 1499년 프랑스 루이 12세의 밀라노 침공으로 피렌체로 건너갈 때 지참한 유일한 여행기가 맨더빌의 것이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Moseley, 2005, 9; Higgins, 2011, xii).¹⁵⁾ 세기 전환기의 탐험가 콜럼버스는 1492.8.3~1493.3.15, 1493.10.13~1496.6.11, 1498년 5월 말~10월 말, 1502.4.3~1504.11.7 등 4차에 걸쳐 ‘인도’로의 항해를 감행하였다. 동양 여러 지역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참고한 도서는 『동방견문록』 라틴어본, 지구의 둘레를 과소 추정한 포세이도니오스의 1만 8,000마일을 인용한 프톨레마이오스(c.90~c.168)의 『지리학(Geography)』, 카나리아 제도에서 중국까지 3,000마일에 불과하다 예측하고 서쪽으로 항해하면

인도에 닿을 수 있을 것으로 진술한 추기경 다이(P. d'Ailly, 1350~1420)의 『이마고 문디(Imago Mundi)』 등이었다.¹⁶⁾ 콜럼버스의 항해 결심을 굳혔던 다이는 『맨더빌 여행기』를 인용한 것으로 전하며 탐험을 후원한 이사벨라 여왕 또한 책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Flint, 1994, 95-96, 101-102).

가상의 여행자 맨더빌은 사제 요한이 화려하기 그지없는 궁정에서 광활한 영토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풍요로운 왕국을 다스린다고 전한다. 왕국이 지상 낙원 가까이 위치한다며 동경을 부추긴 데 이어 청춘의 샘물로 요한에게 영원한 젊음을 부여함으로써 과거를 현재, 나아가 미래로 연결시키고 사제 왕 탐색을 유럽인에게 숙명으로 지운다. 카타이 대칸의 지배가 미치는 범위 또한 넓어 한 번 둘러보는 데에만 뱃길과 육로로 7년이 걸리고 도처에 황금, 보석, 진주 등이 가득하다며 부러워한다.

“카타이는 아름답고 부유한 거대한 나라로 상품들이 넘쳐난다. ... 대칸의 왕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으로 성벽의 둘레가 2마일 이상이나 된다. ... 황제나 대영주들의 식탁에 놓인 그릇들은 벽옥이나 수정, 자수정, 순금으로 되어 있다. ... 이쪽 세계에는 그런 궁전이 없다. 천하에는 타타르의 대칸 만큼 위대하고 부유하며 세력이 강한 군주가 없다. 대인도와 소인도의 황제인 사제왕 요한이나 바빌론의 술탄, 페르시아의 황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주나미, 2014, 254-260)

대항해 시대의 개막은 대서양 건너에 존재할 것으로 믿어진 인도와 카타이 그리고 희망봉 너머 에티오피아 또는 인도 어디쯤에 은둔한 사제 요한과의 접촉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의도치 않은 결과였다. 맨더빌이 묘사한 카타이의 엘도라도 이미지는 배가 땅 끝에서 추락할지 모른다고 걱정한 선원을 이끌고 열망하던 ‘인도’에 발을 디딘 콜럼버스에게 동기를 부여하였다(이영찬, 1996, 9, 16-17). 성지 탈환을 지원할 것이라는 사제 왕에 거는 기대 또한 인도항로 개척의 단초가 되었다. 아프리카·아시아 접경 일대 이슬람 세력의 확장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경유하는 인도

와의 교류가 차단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취할만한 통로를 찾아야 했고, 선봉에 선 것은 엔리케 왕자(Prince Henry the Navigator, 1394~1460)로서 그는 아프리카 서해안을 남하하면서 대륙의 지리를 밝혀나갔다. 뒤를 이어 주앙 2세(재위 1481~1495)도 서부 해안을 탐사하면서 사제 요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1486년에 기니 만 베닌 왕국의 특사가 내방하여 전한 요한 왕국에 관한 소식이 오해로 판명되었음에도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탐험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다(Hamilton, 1996b, 255).¹⁷⁾

1488년 희망봉을 거쳐 인도양으로 진입하는 경로를 발견한 디아스(c.1451~1500)의 위업에 힘입어 1497년 7월 리스본을 떠나 인도항로를 개척한 다가마(c.1460s~1524) 원정대가 1498년 5월 인도 캘리컷에 도착할 때까지 사제 요한은 신화가 아닌 현실이었다. 마누엘 1세(재위 1495~1591)의 친서를 휴대하고 아프리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던 1498년 3월 2일의 일기에는 사제 요한이 낙타를 타고 도달할 수 있는 내륙에 기거하며 대선을 이용한 통상교역이 활발한 다수의 해안도시를 통치한다는 무어인의 제보가 적혀 있다. 무어인에 포획된 두 명의 인도 출신 기독교도와 대면한 일행은 전설이 실체가 되는 순간이라며 감격하였다(Mancall, 2006, 63). 향신료 교역을 성사시키기 위해 인도로 향하던 중 브라질로 표류한 카브랄(c.1467~c.1520)에게도 에티오피아(중인도) 요한 왕국을 확인하는 부수적 사명이 있었다. 이처럼 사제 왕은 내륙의 오지와 대양으로 탐험가를 견인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고 실존 인물이었다면 불가했을(de Rachewiltz, 1996, 74) 세계사적 성과를 유산으로 남겼다.

근대과학으로의 가교역할을 수행한 맨더빌의 흔적은 도처에서 확인된다. 이론은 있지만 청춘의 샘 전설을 믿고 1513년에 소재를 찾아 나선 폰세드레온(J. Ponce de León)은 플로리다를 발견하였고, 엘리자베스 1세에게 자문하며 영국의 항해사업을 독려한 디(J. Dee)도 『맨더빌 여행기』에서 영감을 얻었다.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북서항로를 모색하다 배핀 만을 발견한 프로비셔(M. Frobisher)의 중국 관련 정보는 지참한 맨더빌의 책에서 얻은 것이며, 북미 식민화의 일익

을 담당한 레일리(W. Raleigh) 역시 『기아나 제국의 발견(Discoverie of the Empyre of Guiana)』(1596)의 동양 부분을 설명할 때 참조하였다(Higgins, 2011, xii; Moseley, 2005, 32-33; Edson, 2007, 109; 성백용, 2010, 111).

맨더빌은 지구가 둥글다는 계몽주의적 우주관으로 중세와 근대의 혼성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의 형상화에 영향을 미쳤다. 여행기는 경험과 관찰에 의거하면서도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간접적으로 습득한 자료나 소문을 참고하기 때문에 허구가 개입할 여지가 컸지만, 지리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미지의 세계를 지도화하는 쓰임새가 컸다. 중세의 시대적 상황에서 종말을 상징하는 곡과 마곡의 경우 전설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데,¹⁸⁾ 카스피 해 서쪽 해안에 ‘gog et magog’를 표기한 1025년의 〈카튼 지도(Cotton map)〉가 가장 오래며 마지막 지도화는 1740년경으로 추정된다. 곡과 마곡을 10개 유대지파로 간주한 『맨더빌 여행기』의 가정은 1430년의 〈보르기아 지도(Borgia map)〉에 그대로 재현된다(정인철, 2010, 169, 172). 그밖에 크레스크(A. Cresques)가 8매의 양피지에 남상방위로 그린 1375년의 〈카탈루냐 아틀라스(Atlas català)〉에 포함된 동아시아 정보는 『동방견문록』에 의거하였지만, 매장관습, 카스피 해, 카타이의 타운 등은 『맨더빌 여행기』의 내용과 유사하다. 비앙코(A. Bianco)의 1436년 지도, 1492년에 베하임(M. Behaim)이 뉘른베르크에서 제작한 지구본에도 맨더빌이 책에서 밝힌 내용이 압축적으로 상징화 또는 기록되었다. 추정된 리에주의 맨더빌 묘역을 찾기도 한 오르텔리우스가 근대 최초의 아틀라스 『세계의 무대(Theatrum Orbis Terrarum)』(1570)를 제작할 때 부분적으로 맨더빌을 참조하였고, 메르카토르는 1569년 세계지도에서 자바와 남반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맨더빌 여행기』가 제공했다고 인정하였다(Moseley, 1981, 89; 2005, 31-33; Edson, 2007, 109; 정인철, 2010, 166, 168, 178-179; 2015, 4).

『맨더빌 여행기』는 지도 제작자와 지도를 들고 지리상의 발견에 나선 탐험가의 정신세계를 투영하며 한 권의 책이 촉발한 항해의 결과는 확인했다. 〈카탈



그림 3. 카탈루냐 아틀라스(1375)· 프라 마우로 지도(c.1450)· 칸티노 지도(1502)

자료: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Paris, France; Museo Correr, Venice, Italy; Koninklijke Bibliotheek, Biblioteca Estense, Modena, Italy

루냐 아틀라스>로 대변된 아프리카 중부 이남과 아메리카가 빠진 상태의 세계인식은 프라 마우로(Fra Mauro)의 양피지 구형평면도의 세계로 확대·개편되는데, 대륙에 둘러싸인 내해로서의 톨레미식 인도양을 대신해 대서양과 연결시키는 새로운 방식으로 형상화한 것이다(Edson, 2007, 141-164, 230-231). 이어 아프리카 남단을 경유해 두 대양을 잇는 지리적 탐사는 <칸티노 지도(Cantino planisphere)>(1502)로 귀결된다. ‘Ilha yssabella’ 섬 북서쪽 반도를 두고 아시아, 유카탄, 쿠바, 가상의 지역으로 다양하게 비정하지만 플로리다 반도로 보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그럴 경우 칸티노의 비밀지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륙 체제를 벗어나 남북 아메리카의 브라질 해안과 플로리다 반도가 추가되고 대서양과 인도양 연안이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진 최초의 지도로 평가된다(Nunn, 1924, 92; True, 1954, 77; 그림 3).

탐험여행에 의한 지리상의 ‘재’발견에 따라 『맨더

빌 여행기』는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조작된 책의 불명예를 얻고 그간 쌓아온 문학적 평판과 위대한 여행가로서 맨더빌의 명예 또한 한없이 추락하였으나, 그의 여행기가 세계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준 촉매제가 되었던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이영찬, 1996, 335-336). 『맨더빌 여행기』에 내재된 상호텍스트성을 고려할 때 고전문학이 형성한 동양이라는 텍스트에 대해 동시대인은 적어도 일부의 독해를 공유한 공동체였던 만큼, 독단적으로 문학적 전통과 권위에 도전하여 동양에 대한 고정된 관념과 이미지를 탐험에서 확인한 사실로 단박에 희석하기보다 환상에 빠지고 싶어 하는 독자의 기호와 취향을 반영해 체험 형식의 현장감을 살리면서 허구적 요소로 흥미를 돋우는 맨더빌의 글쓰기 전략은 동양에 대한 거부감 대신 친숙한 면을 강조하여 방문과 환대를 기대하게 만든 요인이었는지 모른다. 사제 왕 요한과 대칸의 위대한 왕국은 주변에 산재한 무질서, 혼돈, 야성의 암흑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안전판으로 존재하였고 그런 만큼 동양은 접근불가의 낯선 영역은 결코 아니었다.

콜럼버스보다 길고 기술적으로 난해한 탐사를 통해 개척한 인도 신행로는 아프리카 황금·나탈·스와힐리 해안의 상아, 직물, 노예와 함께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계피, 육두구, 후추, 정향 등 향신료 해상무역의 독점적 지위를 포르투갈에 안긴다(Northrup, 1998, 189-195). 역경을 극복하며 에티오피아 황제(nägusä nägäst) 신분의 '사제 요한'을 확인하였지만 그는 더 이상 신화와 전설 속 불멸의 구원자가 아닌 이슬람 세력의 공세로 위기에 봉착하는 평범한 군주로서 토착적 일상을 보내는 빈한한 주민을 통치할 뿐이었다. 탈주술화된 그의 왕국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역사적 현실이 되는 순간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그간 신비의 사제와 그의 왕국에 부여된 일체의 권위는 와해되지만(Hamilton, 1996b, 255-256; 김호동, 2002, 88), 서구 유럽에게도 동양 기독교세력과의 동맹은 더 이상 절실하지 않았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가톨릭 통치자는 아프리카, 인도양, 대서양, 중남미에 걸친 육·해상제국을 건설하였기 때문이다(Hamilton, 1996b, 256-257; Jackson, 1997, 428). 십자군원정의 시대는 끝을 향했고 승리주의에 도취된 유럽인에게 사제 요한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향후 포르투갈과 아프리카, 인도, 중국의 관계는 에티오피아 기독교 왕국을 보호하고 이교도와 무신론자를 개종하며 제국주의 착취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다.

6. 결론

시공간적으로 근대와 세계화의 출발점이 된 1492년의 아메리카 대륙 확인과 1498년의 인도 도착 이전 서구의 동양에 대한 인식은 지표 위의 실재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상상에 의해 구성된 이미지와 허상이었다. 고대 유럽인의 심상지도 외곽에 자리한 동양은 반인반수로 채워진 야만의 타자였으며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는 불가사의와 지상낙원의 유토피아가 공존하는 이중적 영역으로 관념화된다. 1357년 무렵 집필되

어 필사본, 번역본, 인쇄본의 형태로 르네상스와 근대 초기까지 대중적 인기를 누린 『맨더빌 여행기』는 유럽중심주의에서 탈피해 자문화를 반영하고 타자를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역 오리엔탈리즘의 통찰을 부여한다.

저자의 신원과 원본의 집필 장소를 둘러싼 신비주의로 은폐하고 미지의 동양에 관한 지식을 과시함으로써 권위를 인정받은 『맨더빌 여행기』는 원저자는 물론 필사, 번역, 편집, 인쇄, 출판에 관여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된 집단저작으로서 시대와 사회의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정을 거쳤다. 전환기를 살았던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 맨더빌은 흥미와 상상을 자극하는 낭만적 전설, 지역지리에 관한 상세한 정보, 지구에 관한 근대과학의 지식을 종합해 계몽적 저술을 완성하며, 가상의 중세 기사를 1인칭 화자로 등장시켜 낯두리와 대화 형식으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독창적 구성을 선보인다. 저자 본인이 속한 기독교 세계를 성찰하는 윤리·도덕적 태도 또한 인상적 이어서 고대와 중세의 문학전통에 길들여진 독자의 코드에 부응하기 위해 이국적인 동식물과 관습,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서 비롯된 동양의 타자성을 부각시키지만, 단순히 서양의 자아를 지탱하는 타자가 아니라 그 도덕적 타락상을 비추는 거울로 묘사한다.

맨더빌은 비판, 성찰, 침잠하는 가운데 세상에 만연한 차이와 분란을 통합하고 절충하며 다양성과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종교적 신념이 기독교에 기울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타자성에 대한 관대한 태도는 일체의 문화현상에 대한 중립적 입장으로 표출된다. 그는 동서양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함에도 관계를 적대적으로 상정하는 대신 서양의 종교·도덕적 자화상을 들여다보는 거울로서 동양을 활용한다. 동방은 문명과 야생이 교차하고 물적 욕망을 자극하며 교화의 대상인 동시에 고결한 땅으로서 신앙의 순수성이 넘쳐나고 분열과 탐욕이 없으며 경건하고 정의로워 기만 가득한 기독교 사회의 추악한 일면을 성찰하고 교훈을 추출하는 원천이었다. 저자는 나아가 불안정한 경계를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위반을 통해 동서양의 문화적 대화를 성사시키고 궁극적으로 상호이해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동양은 신이

목적론에 입각해 조화롭게 창조한 세계 안의 반쪽이었다.

동양은 대칸과 사제 왕 요한의 통치를 받는 창조 범위 안의 또 다른 세계였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가교역할을 자임한 사제 요한은 인도에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사도 도마의 전설, 정통 기독교로부터 파문되어 동방으로 교세를 떨친 네스토리우스의 역사적 맥락, 성지를 잃고 위기에 빠진 유럽의 군사전략적 상황과 맞물려 창안된 가공의 인물이지만 교황이 사절을 파견해 친서를 전할 만큼 현실 안에서는 실존하는 것으로 유럽인의 심상에 깊게 뿌리를 내린다. 도덕적이고 풍요로운 사제 요한의 기독교 왕국은 유럽이 당면한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인도를 거쳐 대항해 시대가 개막될 즈음에는 에티오피아로 지리적 위치를 달리한다. 성지를 두고 이슬람 세력과 패권을 다투던 십자군이 수세에 몰리면서 막강한 동방의 지원군에 대한 기대감이 빚은 신기루였지만 맨더빌의 여행기는 인도를 찾아나서는 실전으로 환상을 체화한다.

사제 요한을 향한 독자의 갈망과 지구는 둥글어 일주가 가능하고 세계 여러 곳에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신념은 엔리케 왕자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탐험가에게 동방여행의 동기를 부여하였다. 동서양을 자유롭게 오간 선교사, 상인, 외교관에 의해 동양의 실상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단순 호기심의 세계는 이제 향신료와 각종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서 탐험가를 끌어들이며 그 과정에 카타이와 인도의 물적 풍요를 전한 『맨더빌 여행기』는 촉매제가 되었다. 대항해의 결과 권위를 갖춘 사제 왕은 환상이었고 풍요와 신비의 땅 동양은 초라하기만 한 현실이 전해짐으로써 역설적으로 맨더빌의 권위는 실추되었으나, 『맨더빌 여행기』는 동서문명의 교류를 구체화하는 세계사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아메리카 대륙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불타는’ 열대와 희망봉을 돌아 무역풍과 해류를 이용하며 인도와 동남아시아 항로를 개척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여행을 거의 하지 않은 맨더빌 본인은 허구의 전략으로 중세 유럽인의 상상을 자극하여 목숨을 건 동방탐험에 동기를 부여한 공적을 인

정받아 세계사에 기록될 위대한 탐험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동양의 발견, 성찰을 통한 서양의 재발견, 근대 세계체제의 형성은 사제 요한을 가공한 십자군 심상과 청춘의 샘, 지상낙원, 괴수인간, 인도, 카타이, 사제 요한 등의 환상을 전한 『맨더빌 여행기』의 찬연한 유산이다.

주

- 1) 중세기 책의 출간 및 유통은 수도원이 독점하였다. 양피지를 이용한 필사가 학업의 일부였기에 제본기술이 발전하였고 교회, 왕실, 귀족은 후원자이자 수입원이었다. 12세기 말 대학설립과 자본계급의 등장은 서적의 복사·배포에 변화를 초래한다. 피시아(pecia, quires)는 한 사람이 책 전체를 필사하는 데서 오는 비효율을 제어한 개선책으로서 저자로부터 원본을 전해 받은 서적상이 필사하여 등본(exemplar)을 제작, 분철한 다음 대학 파견단의 엄밀한 대조와 승인을 거쳐 대여 및 복제하는 체제였다. 분철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필사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등본에서 사본을 제작하는 방식도 14세기부터 송진 처리한 기름종이를 활용하여 오타자 문제를 해결한다. 종이는 저가의 책을 대량 제작하는 데 절대적이었으며 인쇄혁명을 이끈다(Martin & Febvre, 1976, 11-30).
- 2) 지식의 은밀성은 권력을 담보한다. 거리와 공간도 정치·이념적 의미를 내포하며 권력화에 조력하는데, 접근이 어려운 지역, 그곳으로 여행하는 데 따르는 위험, 원격지 전문가의 희소성은 해당 지역에 관한 지식을 신비화하였다. 전통사회의 수평적 거리는 우주의 중심을 오르내리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지리적으로 먼 장소에 대한 경험이 초자연적 맥락에서 이해된 만큼 직·간접적으로 습득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식은 고도의 권위를 보장하였다(Helms, 1988, 4-5, 14-18).
- 3) 맨더빌은 성지 일대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에 관한 기술을 위해 Tractatus de distanciis locorum Terrae Sanctae, Descriptio Terrae Sanctae, Descriptio Terrae Sanctae, Liber de Terra Sancta, Peregrinatio, Liber de quibusdam ultramarinis partibus 등에 의존하였고, 동양을 다룬 부분에서는 Iter Alexandri Magni ad Paradisum, Littera Presbyteris Johannis, Relatio 등을 참고하였다. 그밖에 Historia Hierosolomitanae Expeditionis, Alexander Romances, Historia rerum in partibus transmarinis gestarum, Flor des estoires de la terre d'Orient, Historia

- Orientalis 같은 역사서, Li Livres dou Tresor, Otia Imperialia, Imago Mundi, Speculum Historiale, Speculum 등의 백과사전, 성경, Tractatus de statu Sarracenorum, Legenda Aurea 등의 종교서, Tractatus de Sphera 등 과학서를 집필에 활용하였다.
- 4) 중세 여행기는 객관적 관찰·발견과 문학적 환상·상상·허구의 모호한 경계에 놓인다. 저자의 경험이 항상 대중의 기대에 부응한 것은 아니어서 허구가 실제로 밝혀지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다. 독자를 실망시키지 않고 작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또는 단순한 기억, 선호, 공명심을 이유로 저자는 때로 진실을 감추며 윤색에 나선다(von Martels, 1994, xiv-xviii).
- 5) 역 오리엔탈리즘은 개념을 처음 소개한 위스테드(J. T. Wixted, 1989) 이래 동양의 소비니즘, 민족주의, 셀프로리엔탈리즘을 포함한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의 의미로 이해되다 서구에 대한 선망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대되며, 서양의 사회과학자가 서구의 경제적 침체 및 사회적 무질서에 대비되는 아시아 가치(Asian value)를 재평가하면서 동양의 강점을 부각하는 개념으로 변형되고(Hill, 2000), 논의에 철학적 깊이가 더해지면서 서구인이 특권적 관점을 가진 채서 해체하고 동양의 맥락에서 타자를 구성한 뒤 서구로 투사하는 성찰의 개념으로 해석된다(Kikuchi, 2004).
- 6) 몽골주의의 안정기에 동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수도사, 외교사절, 탐험가, 상인 등의 경험과 관찰에 의해 동방은 실체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들의 여행기록을 접할 수 있는 계층은 한정적이어서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고대 이래 잔상으로 전해오는 문명과 야만이 혼재하는 미지의 세계, 기괴한 형상의 종족과 우상숭배가 유지되는 타자의 영역, 물질 풍요의 지상낙원이 자리한 이상향으로 인식되었다.
- 7) 발가락이 뒤로 향한 사람, 구운 살코기 냄새와 과일 및 꽃의 향기로 살아가는 입 없는 사람, 1,000년을 사는 극북인, 콧구멍이 없고 입 윗부분이 아랫입술 쪽으로 튀어나온 사람, 개의 귀에다 이마에 외눈 달린 사람 등을 언급하였다.
- 8) 크테시아스에서 플리니우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와 로마의 작품에는 가슴이 없는 Amazons, 식인종족 Anthrophagi, 대척점에 사는 발이 반대로 달린 Antipodes, 머리가 없는 Blemmyae, 개의 머리를 한 Cynocephali, 검게 탄 Ethiopians 등 40여 종족이 확인된다(Phillips, 1994, 46-48).
- 9) 인도에 Sciapodes, 피그미, 거인, 입 없는 사람, 사람의 머리 사자의 몸 전갈의 꼬리를 한 Martikhora, 유니콘, 스키타이와 인접 지역에는 말발굽 인간, 큰 귀 인간, 식인종, Hyperboreans, 그리핀과 싸우는 외눈박이 Arimaspians, 에티오피아에 Satyrs, 염소의 하체를 가진 Fauns, 긴 입술 인간, 어깨와 가슴에 머리를 가진 인간, 뱀의 왕 Basilisks 등이 그려진다(Wittkower, 1942, 174).
- 10) 랭스 소재 생흐미 수도원의 대수도원장 오도(Odo)가 작성한 문서와 출처불명의 또 다른 자료에는 교황 갈리스토 2세와 인도 대주교의 1122년 로마 모임이 기록되는데, 대주교는 원로원에서 성 도마의 기적과 사도의 권좌를 보호하고 있는 그리스도 권력자에 관해 강연하였고 미상의 자료에는 그의 신원을 대주교 요한(John of India)으로 밝혔다(de Rachewiltz, 1996, 62; Hamilton, 1996b, 237-238; Phillips, 2013, 46). 대주교가 사제 요한으로 알려진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동양 먼 곳에 강력한 기독교도 통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의 보고를 통해 처음 알려진다.
- 11)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네스토리우스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여 429년 에페소스 공회에서 이단으로 파문당하고 페르시아, 인도, 중국 등지로 교세를 확장한다(de Rachewiltz, 1996, 61).
- 12) 황제를 신처럼 떠받든 비잔틴에 적대적이었고 『알렉산더로망스』의 동양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투영되며 성서적 세계관이 다분한 점으로 미루어 라틴세계에서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위작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성로마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가 교황 알렉산데르 3세와의 알력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제국으로 요한의 왕국을 가정하고 이를 선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날조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Hamilton, 1996a; Jackson, 1997, 426-427; Phillips, 2013, 46-48).
- 13) 4세기에 대인도(India Major)와 소인도(I. Minor)가 언급되고 1118년의 피사노(G. Pisano) 문서에 3인도가 등장한다. 저베이스(Gervase of Tilbury, c.1150~1220)는 오바다 위경에 기대 바돌로매가 복음을 전한 상인도(I. Superior), 도마의 하인도(I. Inferior), 마태의 중인도(I. Meridiana)로 나누었다. 역대로 3인도는 근·소·상(Nearer·Lesser·Minor·Superior) 인도, 원·대·하(Further·Greater·Major·Inferior) 인도, 제3·중(Third·Middle) 인도로 나뉘고, 각각 북인도, 남인도 말라바르·코로만델과 동남아시아 일부, 에티오피아를 가리켰다. 모호했던 중인도는 대륙의 윤곽이 명확해지면서 혼란을 해소하는데, 근인도~원인도, 소인도~대인도, 상인도~하인도 사이가 아닌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중간에 자리한다는 'Intermediate' India의 의미가 컸다. 한때 에티오피아가 홍해와 인도양 서부를 부분적으로 통제했던 것을 고려하면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Hamilton, 1996b, 239; Phillips, 1994, 30-31; de Rachewiltz, 1996, 73-74; Beckingham, 1996, 15-17).
- 14) 현재 북인도는 굽타 왕조, 무굴 제국, 힌두교 성지, 부처 유적지로 중요하지만 유럽인에게는 문순을 이용해 아라비

- 아와 동아프리카의 항구에서 쉽게 닿을 수 있었던 남부가 더 친숙하다.
- 15) 플랑드르의 판 기스틀레(J. van Ghistele)가 집필한 *Tvoyage*(1490)에서도 맨더빌의 영향이 감지된다(Bejczy, 1994, 85-91). 1481년에서 1485년까지의 여행기록으로서 성지를 방문하고 사제 요한의 왕국으로 알려진 에티오피아를 찾아가는 모티프는 낯설지 않다. 베니스에서 베이루트 행 선박을 타고 예루살렘에 성공적으로 도착하였지만 후반부 여정은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역시 여행 중에 괴물인간을 찾으려 했고 직접 목격하거나 제보자들로부터 확신을 얻을 수 없었지만 에티오피아 인근 또는 인도 어디쯤엔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견지하였다.
- 16) 추기경 다이는 인도양이 내해라는 톨레미의 주장을 반박하며 남아프리카 인근의 대양이라 *Imago Mundi*에서 주장함으로써 포르투갈 탐험가의 인도항로 개척에 큰 영향을 미쳤다(Martin, 2005, 45).
- 17) 12세기 유럽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세력에 대한 공포와 반감을 표출한 반면 사하라 이남은 환상의 창조물로 가득한 신화의 땅으로 상상하였다. 고전지리학의 영향으로 열대에 위치하여 삶이 불가하다 보았으나 에티오피아는 지상낙원으로 추정되었다. 기독교 국가로서 전설의 사제 요한이 통치하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인이 낙원에 산다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에 가깝게 자리한 것만으로도 은총이라 여겼으며, 언젠가 사제 요한과 연합해 사라센과 대적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전설은 15세기 이후까지 존속하며 아프리카의 이미지에 호의적으로 작용하였다(Duncan, 1993, 47-49).
- 18) 근대과학에서 여행과 탐험의 경험과 물적 증거가 이론 중심의 철학과 문학의 오류를 밝혔음에도 미개척 지역을 추론할 때에는 여전히 고전의 신화적 창조물이 등장하는데, 설령 발견이 고전의 해석을 전도하였더라도 성서적 관점은 경험적 발견의 해석을 통제하였다(Olesen, 2011, 130-135).

참고문헌

- 김호동 역, 2000,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사계절.
(Marco Polo, 1938, *The Description of the World*, trans. A. G. Moule & P. Pelliot, George Routledge & Sons Ltd.)
- 김호동, 2002, 동방 기독교와 동서문명, 까치글방.
- 남종국, 2013, “사제 요한 왕국 전설의 형성,” 서양중세사연구, 32, 81-106.
- 남종국, 2014, “사제 요한 왕국을 찾아서,” 서양중세사연구, 34, 116-143.
- 박용진, 2014, “중세 말 유럽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그 변화,” 서양중세사연구, 33, 353-380.
- 성백용, 2010, “맨드빌의 『여행기』와 동양,” 동국사학, 49, 105-138.
- 성백용, 2011, “‘몽골의 평화’ 시대의 여행기들을 통해서 본 『맨드빌 여행기』의 새로움,” 서양중세사연구, 28, 197-229.
- 심승희, 2001, “문학지리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13(1), 67-84.
- 윤기향 역, 2007, 황금전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de Voragine, J., c.1260, *Legenda aurea*.)
- 이영찬 역, 2003, 수수께끼의 기사, 생각의 나무. (Milton, G., 1996, *The Riddle and the Knight*, Picador.)
- 이은숙, 1992, “문학지리학 서설,” 문화역사지리, 4, 147-166.
- 정수일 역, 2002, 중국으로 가는 길, 사계절. (Yule, H. and Cordier, H., 1915, *Cathay and the Way Thither*, Vol. 1, Hakluyt Society.)
- 정수일 역, 2012, 오도릭의 동방기행, 문학동네. (Odoric of Pordenone, 2001, *The Travels of Friar Odoric*, trans. H. Yul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 정인철, 2010,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곡과 마곡의 표현 유형,” 대한지리학회지, 45(1), 165-183.
- 정인철, 2015, “『카탈루냐 아틀라스』의 동아시아 지리정보에 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15(2), 1-14.
- 주나미 역, 2014, 맨더빌여행기, 오롯. (Mandeville, J., 1900, *Travels of Sir John Mandeville*, Macmillan and Co.)
- Aerts, W. J., 1994, Alexander the Great and Ancient Travel Stories, in *Travel Fact and Travel Fiction*, ed. Z. von Martels, E. J. Brill, pp.30-38.
- Bar-Ilan, M., 1995, Prester John: Fiction and History, *History of European Ideas*, 20(1-3), 291-298.
- Beckingham, C. F., 1996, The Achievements of Prester John, in *Prester John: the Mongols and the Ten Lost Tribes*, ed. C. F. Beckingham & B. Hamilton, Variorum, pp.1-22.
- Bejczy, I., 1994, Between Mandeville and Columbus: *Tvoy-*

- age by Joos Van Ghistele, in *Travel Fact and Travel Fiction*, ed. Z. von Martels, E. J. Brill, pp.85-93.
- Bennett, J. W., 1954, *The Rediscovery of Sir John Mandeville*,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 Bormans, S., 1887, *Chronique et Geste de Jean Des Preis Dit D'Outremeuse*, Bruxelles, F. Hayes, Imprimeur de L'Academie Royale de Belgique, pp.cxxxiii-iv.
- Classen, A., 2013, Marco Polo and John Mandeville, in *Fundamentals of Medieval and Early Modern Culture*, ed. A. Classen & M. Sandidge, De Gruyter, pp.229-248.
- de Rachewiltz, I., 1996, Prester John and Europe's discovery of East Asia, *East Asian History*, 11, 59-74.
- Desmond, M., 2009, The Visuality of Reading in Pre-Modern Textual Cultures, *Australian Journal of French Studies*, 46(3), 219-234.
- Duncan, J., 1993, Sites of Representation: Place, Time and the Discourse of the Other, in *Place/Culture/Representation*, ed. J. Duncan & D. Ley, Routledge, pp. 39-56.
- Duncan, J. and Gregory, D., eds., 1999, *Writes of Passage: Reading travel writing*, Routledge.
- Edson, E., 2007, *The World Map, 1300-1492*,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Fleck, A., 2000, Here, There, and In Between, *Studies in Philology*, 97(4), 379-400.
- Flint, V. I., 1994, Travel Fact and Travel Fiction in the Voyages of Columbus, in *Travel Fact and Travel Fiction*, ed. Z. von Martels, E. J. Brill, pp.94-110.
- Foucault, M., 1977[1963], A Preface to Transgression, in *Michel Foucault: 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 ed. and trans. D. F. Bouchard & S. Simon, Cornell University Press, pp.29-52.
- Friedman, J. B., 1994, Cultural conflicts in medieval world maps, in *Implicit Understandings*, ed. S. B. Schwartz,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64-95.
- Gaunt, S., 2009, Translating the Diversity of the Middle Ages, *Australia Journal of French Studies*, 46(3), 235-248.
- Hamelius, P., 1919, *Mandeville's Travels*, Vol. II: Introduction and Notes,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Ltd.
- Hamilton, B., 1996a, Prester John and the Three Kings of Cologne, in *Prester John*, ed. C. F. Beckingham & B. Hamilton, Variorum, pp.171-185.
- Hamilton, B., 1996b, Continental drift: Prester John's progress through the Indies, in *Prester John*, ed. C. F. Beckingham & B. Hamilton, Variorum, pp.237-269.
- Helms, M. W., 1988, *Ulysses' Sail*,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iggins, I. M., ed., 2011, *The Book of John Mandeville with Related Texts*, Hackett Publishing Co. Inc.
- Hill, M., 2000, 'Asian values' as reverse Orientalism: Singapore, *Asia Pacific Viewpoint*, 41(2), 177-190.
- Jackson, P., 1997, Prester John redivivus: a review articl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eries 3, 7(3), 425-432.
- Kikuchi, Y., 2004, *Japanese Modernisation and Mingei Theory*, Routledge Curzon.
- Larner, J., 2008, Plucking Hairs from the Great Cham's Beard, in *Marco Polo and the Encounter of East and West*, ed., S. C. Akbari & A. Iannucci,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p.133-155.
- Le Goff, 1984, *The Birth of Purgatory*, trans. A. Goldhamm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tts, M., 1953, Introduction, in *Mandeville's Travels, Texts, and Translations*, Hakluyt Society, xvii-l.
- Mallory, W. E. and Simpson-Housley, P., eds., 1987, *Geography and Literature: A Meeting of the Disciplines*, Syracuse University Press.
- Mancall, P. C., ed., 2006, *Travel Narratives from the Age of Discovery*, Oxford University Press.
- Martin, G. J., 2005, *All Possible Worlds*,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 Martin, H-J. and Febvre, L., 1976, *The Coming of the Book*, trans. D. Gerald, Verso.
- Moseley, C., 1974, The Metamorphoses of Sir John Mandeville, *Yearbook of English Studies*, 4, 5-25.
- Moseley, C., 1981, Behaim's Globe and 'Mandeville's Travels', *Imago Mundi*, 33, 89-91.
- Moseley, C., 2005, *The Travels of Sir John Mandeville*, Penguin Books.
- Moseley, C., 2015, *The Travels of Sir John Mandeville and*

- the Moral Geography of the Medieval World, *Portal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International Studies*, 12(1).
- Northrup, D., 1998, Vasco da Gama and Africa: An Era of Mutual Discovery, 1497-1800, *Journal of World History*, 9(2), 189-211.
- Nunn, G. E., 1924, *Geographical Conceptions of Columbus: A Critical Consideration of Four Problems*,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Research Series No. 14.
- Olesen, J., 2011, The Persistence of Myth: Written Authority in the Wake of New World Discovery, *Canadian Review of American Studies*, 41(2), 129-148.
- Phillips, K. M., 2013, *Before Orientalism: Asian Peoples and Cultures in European Travel Writing, 1245-1510*,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Phillips, S., 1994, The outer world of the European Middle Ages, in *Implicit Understandings*, ed., S. B. Schwartz,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3-63.
- Powell, J. M., 1977, *Mirrors of the New World*, Dawson.
- Seymour, M. C., 1993, *Sir John Mandeville*, Variorum.
- Sobecki, S., 2002, Mandeville's Thought of the Limit, *Review of English Studies*, 53(3), 329-343.
- Souers, P. W., 1956, Review: The Rediscovery of Sir John Mandeville by Josephine Waters Bennett, *Comparative Literature*, 8(2), 161-164.
- Speer, M. B., 1980, Wrestling with Change: Old French Textual Criticism and *Mouvance*, *Olifant*, 7(4), 311-326.
- Tinkle, T., 2014, God's Chosen Peoples: Christians and Jews in *The Book of John Mandeville*,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113(4), 443-471.
- True, D. O., 1954, Some early maps relating to Florida, *Imago Mundi*, 11, 73-84.
- Uebel, M., 2005, Appendix: Translation of the Original Latin Letter of Prester John, in *Ecstatic Transformation*, Palgrave Macmillan, pp.155-160.
- von Martels, Z., 1994, Introduction: The eye and the mind's eye, in *Travel Fact and Travel Fiction*, ed. Z. von Martels, E. J. Brill, pp.xi-xviii.
- Weever, J., 1767[1631], *Ancient Funeral Monuments*, W. Tooke.
- Wittkower, R., 1942, Marvels of the East: A Study in the History of Monsters,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5, 159-187.
- Wixted, J. T., 1989, Reverse Orientalism, *Sino-Japanese Studies*, 2(1), 17-27.
- Zumthor, P., 1992[1972], *Toward a Medieval Poetics*, trans. P. Bennett, Minnesota University Press.
- Zumthor, P., 1994, The Medieval Travel Narrative, *New Literary History*, 25(4), 809-824.
- 교신: 홍금수,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kshong85@korea.ac.kr, 전화: 3290-2366)
- Correspondence: Hong, Keumsoo,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e-mail: kshong85@korea.ac.kr, phone: +82-2-3290-2366)
- 최초투고일 2018. 7. 24
수정일 2018. 8. 7
최종접수일 2018. 8. 19